

since 1996



한인뉴스

Vol. 173



2010

11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서 한인뉴스를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외환은행이 올해로
 개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에게 전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인도네시아외환은행은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든든한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로서, 저희 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들께 수준 높고 세련된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0. 11. 5

인도네시아외환은행장 조 용 우



인도네시아외환은행 자카르타 본점

PT. Bank KEB Indonesia, Head Office
 Wisma GKBI 20th Fl. Suite 2002, Jl.Jend.Sudirman No.28, Jakarta
 ☎ T (021) 574-1030 F (021)574-1031/2



인도네시아외환은행 짜카랑 출장소

PT. Bank KEB Indonesia, Cikarang Sub-Branch
 Menara Pacific 1st Floor Jl. M.H. Thamrin No 107, Lippo Cikarang Bekasi
 ☎ T (021) 897-3340 F (021)897-3341



인도네시아외환은행 끌라빠가딩 출장소

PT. Bank KEB Indonesia, Kelapa Gading Sub-Branch
 Graha Rekso Building, Ground Floor, Suite GR-W03
 Jl. Bulevar Artha Gading Kav. A1, Sentra Bisnis Artha Gading
 Kelapa Gading, Jakarta 14240
 ☎ T (021) 4585-6388 F (021)4585-6389

- 예금, 외환, 수출입 관련 문의 : 부장 고 대광 ☎ 574-1030 (내선 215)
- 여신관련 문의 : 부장 조 영순 ☎ 574-1030 (내선 209)
- 출장소 업무 전반 : 부장 김 흥영 ☎ 897-3340(짜카랑) / ☎ 4585-6388(끌라빠가딩)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계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Bersih
itu
Indah!

PT.KOLON INA의 필름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PT.KOLON INA는
일상생활에 편익을 주는 **Packaging Film**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One & Only

PT.KOLON INA



Jl. Raya Serang km.80, Serang Banten 42183, Indonesia

Tel : 0254-281234 Fax : 0254-281555

2010 송년의 밤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기원하기 위해
송년 축제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0년 12월 14일(화) 오후 6:30
Hotel Mulia Senayan, Grand Ballroom

참가비 50만 루피아/1인

입장권판매처

한인회, 무궁화 유통(전매장), 뉴서울슈퍼, K-마트

입장권 판매일시

11월 12일 ~ 11월 30일(선착순 1000명)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Tel: 021) 521 2515, 527 3539

Fax: 021) 521 2486, 5296 0586



사회자 정성한
(전 켈트삼총사)



특별가수 김연숙
(그날, 초연)

1부: 공식행사
2부: 연회 및 공연



푸짐한 경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LED-TV, 피아노, 한국왕복티켓,
고급핸드폰, 디지털카메라...

후원사

코린도그룹, 재인니한국봉제협의회,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재인니땅그랑한인회,
민주평통인니지회, Hanindo Express, Dong Jung, KMK Global Sports,
Starcamtex, Tri Karya Alam, Doosan Cipta Busana Jaya, ZIMMOAH,
Sung Bo Jaya, Royal Sumatra, 동서증권, Inhwa Indonesia,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삼성, LG, 삼익, 일요신문, OKTN, K-TV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INDONESIA KOREA WEEK

Flying into the future



한·인니 다층적 미래협력 열리다

Flying into the Future

인도네시아-한국 주간, 현지에 잊지 못할 인상 남겨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과 화합, 협력 및 긍정적 미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2010 인도네시아-한국 주간(Indonesia-Korea week)’ 행사가 지난 10월 11일부터 7일간 자카르타 도심 곳곳에서 개최되어 지난 2006년 양국 정상간 체결한 ‘한-인니 전략적 동반관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양국간 다층적인 교류의 큰 물꼬가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주인도네시아한국 대사관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7개 정부부처와 11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금번 행사는 양국간 긍정적 미래 관계를 상징하는 ‘Flying into the Future’의 모토로 쌍방향의 문화행사, 경제협력, 국제교류의 큰 테두리 안에 경제, 문화, I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의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한 단계 진보한 행사들로 알차게 꾸며져 양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인상을 남겼다.

어메이징 코리아!

문화의 힘으로 협력과 상생의 저변 형성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다층적 협력과 미래를 위한 긍정적 상생의 초석으로 가장 저변에 깔려야 하는 것으로서 양국간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번 문화행사의 특징은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것에 치우쳐 있던 과거의 단조롭고 평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한국문화의 역동적 다양함의 모습들을 폭넓게 보여줘 인도네시아와의 적극적인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한국 주간’의 첫 행사였던 ‘2010 Indonesia-Korea Night(10.11)’에서 빛을 발했던 한복과 바떡의 아름다운 조우와 양국 정상급 가수가 대거 참가해 수천의 관중을 사로잡았던 한-인니 우정 나눔 콘서트(10.12), 한 주간 계속된 ‘한국영화제(10.11~16), 비트(Beat) 공연(10.13)과 점프 및 비보이 공



한-인니 우정 나눔 콘서트에서 사이니가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다.(10월 12일)



환상적인 한복과 바디의 만남 (10월 11일 인니-코리아 나이트)



한-인니 우정나눔 콘서트에서 열창하고 있는 양국 가수 나오미와 기따 구따와 (10월 12일)



전통과 현대, 록과 코메디를 넘나든 비언어극인 비트 공연 장면(10월 13일)



한-인니 우정 나눔 콘서트에서 관중들을 사로잡은 가수 손호영.(10월 12일)



무술과 코미디의 기억인 조화 '비트' 공연, 한주간의 행사 곳곳을 누비며 톡톡튀는 재미를 선사했다.



한국대사배 태권도 대회에 앞서 경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멋진 공연이 있었다.(10월 15일)



양국 배드민턴의 화합을 위해 열린 대표들간의 멋진 친선경기.(10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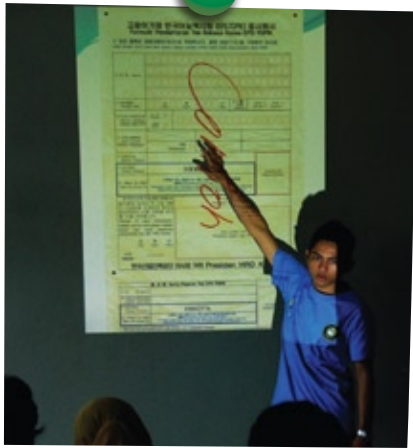
자카르타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세계 최고의 수준인 '비보이'들의 공연 장면



양국간 인적교류행사인 고용허가제 갱신 MOU 장면 (10월 15일)



첨단 영상통화 장비가 이용되기도 한 '잡페스티벌'. (10월 15일)



한국주간 동안 매일 7천여 인니근로자들이 한국어인증시험에 지원했다.



인도네시아 인이 잡페스티벌에 참여한 24개 한국기업에 입사지원을 하기 위해 서식을 작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산업안전보건장비들을 현지인들이 관람하고 있다.

연, 천년 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준 도자기 전시회(10.12~17), 태권도 대회 및 시범단 공연(10.15), 배드민턴 친선경기(10.15~16), 한국 겨울관광 및 의료관광 홍보(10.14~15), K-POP 및 댄스 경연대회(10.15), 한국요리경연대회(10.16) 등 갖가지 문화행사들은 양국 문화의 소통과 저변 확대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현지에서 초창기 한류의 바람을 강하게 일으켰던 TV 드라마 대장금의 의상제작을 담당했던 신숙영 디자이너가 양국 우정과 화합을 위해 바떡을 이용해 특별히 디자인한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는 패션쇼 장의 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감탄사를 절세 없이 연발케 한 장본인이었고 동시에 양국간 쌍방향 교류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했다. 폐차장에서 일어난 짙막한 해프닝을 담은 내용을 한국전통 타악기와 록을 접목시키거나 로봇춤, 마임, 실크서커스 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준 비인어극인 'Beat 공연'은 뛰어난 연출력과 연기자들의 빼어난 연기로 시종 관중들의 박수와 웃음을 자아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화합, 인간과 인간의 화합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심성 저변에 깔려있는 공동의 감정까지 끄집어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류애적 화합의 진한 감동까지 선사한 걸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도자기 전시회'엔 연일 수백여 방문자들이 모여들었고 직접 도자를 만드는 체험의 장도 마련되어 도자에 대한 현지인들의 심적 거리를 줄였고 수십여 점의 생활도자와 작품판매도 이뤄져 2년 전 첫 전시회 비해

한국 도자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했음을 보여줬다. 또한 한국의 전통 국기인 태권도 시범과 태권도 대회, 인도네시아의 국민 체육으로 불리는 배드민턴 친선대회도 함께 개최되어 집중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콘서트 표를 구하지 못했지만 샤이니와 구준엽, 나옴 등 한국 정상급 가수를 조금이나마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 콘서트 장외에 설치



무안경으로도 3D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한국의 첨단 TV를 보고 있는 관람객



한국 첨단명품관에서 가장 인기를 끈 로봇총 장면

(10.14), 취업박람회(10.14), 산업안전보건 기술협력 MOU 체결 및 전시코너 운영 및 보호구 기증(10.14), 한-인니 직업 훈련 세미나(10.14), 한-인니 미래 ICT 연구개발 인프라 협력 워크숍(10.14), 한국명품전시회(10.14~16) 등 10여 개가 넘는 행사들이 연일 이어져 한국의 선진국형 기술 전시 및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정책 등에 대한 소개 및 논의들과 더불어 직접적인 많은 양국 경제 전문가들의 만남이 이뤄졌다.

된 스크린을 보며 아쉬움을 달랜 2천여 명에 가까운 인니 팬들, 그리고 특히 최근 발매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샤이니의 'Hello'를 주저 없이 따라 부른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눔과 소통의 문화의 큰 힘을 느끼기에 충분했으며 직접 무대에 오른 한국 인기 아이돌 그룹인 샤이니 조차 최근곡을 따라 부른 인니 팬들에 놀랐으며 상생을 위한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각종 행사에 뜨거운 패닐로 수 차례 참여해 멋진 그림들을 그려낸 '점프'와 '비보이' 공연들은 현지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보편성을 띤 한국젊은문화의 힘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파워풀 코리아!

문화의 저변 형성으로 경제협력 강화

2006년 12월 한-인니 양국 정상간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한 차원 높게 승격되었고 양국의 교역의 중요성은 해가 거듭될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개최된 '인도네시아-한국 주간'에서 경제협력과 관련된 각종 행사들이 집중 개최되었다.

양국간 산업기술협력포럼(10.12), 한-인니 과학영재 및 녹색성장 교육포럼(10.13~14), 한-인니 직업교육세미나(10.14), 고용허가제 설명회 및 고용허가제 MOU 갱신 체결

인도네시아-한국 주간 4일째 한국고용노동부 및 3개 유관기관에서 진행한 '잡 페스티벌'은 취업기회 제공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현지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인니 근로노동자들을 위한 고용허가제 설명회가 이뤄져 예비 노동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인니인력이주부 간 계약을 갱신한 고용허가제 MOU 체결 내용에 단순노동자 이외에 기술직 노동자도 포함시켜 보다 폭넓은 경제 협력의 관계를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주관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민을 이어주는 일자리 한마당인 '취업박람회'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성과를 여지없이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한국취업외국인 예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한국어인증시험의 접수와 연계해서 실시된 취업박람회 장에는 삼성전자, 코린도, 키데코, 롯데마트, 락엔락 등 24개 한국기업들과의 채용면접을 위해 몰려든 취업지원자들과 한국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귀국근로자들로 붐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번 취업박람회 행사를 계기로 양국간 고용·노동분야 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을 만큼 현지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한국의 첨단기술과 디자인으로 무장한 제품들은 자카르타의 한 유명몰의 중심에 전시되어 현지인을 매혹시켰다.



한국도자전에서 도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동시 개최되어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도자전엔 생활 소품도자들도 전시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국도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한-인니 우정나눔 콘서트에서 자카르타한인어린이 합창단이 인도네시아 국가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코트라 주관으로 퍼시픽 플레이스 몰에서 열린 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 Show는 3일간 전시를 통해 3D TV, 터치 테이블,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전시하고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영화를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해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했다. 안경 없이도 3D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무안경 3D TV와 한국첨단기술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미니로봇의 댄스는 관람객들에게 특히나 큰 즐거움을 선사한 아이템이었다.

행사 곳곳에 교민 파워 라시! 양국미래관계에 교민들 주도적 잠재력 보여줘

인도네시아-한국 주간이 국가브랜드를 포함한 한국 정부 단체의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교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면이 있었지만 한 주간 철새 없이 이뤄진 행사 곳곳에 교민단체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돋보였고 교민단체의 파워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우선 대사관의 숨은 노력이다. 정부주도로 이뤄진 행사인 만큼 본국과 현지의 중요 매개체로서 수달 전부터 대사관의 업무는 상당부분 한국주간에 집중되었다. 본격적인 행사들이 진행되는 동안 대사관의 일상 업무 외에 한국주간 행사 업무에도 연일 많은 힘과 시간을 쏟아 부으며 성공적인 행사

를 일궈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승은호)는 인도네시아 한국 주간 수 달 전부터 대사관과 행사주관 한국 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주간을 알려 교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는가 하면 각종 행사에 교민민간단체 대표자격으로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비트' 공연 팀 등 멋진 공연을 선사해 준 한국 공연단체들을 초청해 연회 자리를 갖고 격려하는 등 후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재인니한국부인회에서(회장 홍미숙)는 문화관광부와와의 협력으로 현지인 대상 한국음식경연대회를 개최(간다리아 시티몰)하는가 하면 현지에 KBS World를 서비스하고 있는 교민방송인 OKTN과의 협력으로 K-POP 콘테스트(센트럴 파크 몰)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음식경연대회와 K-POP 콘테스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예상치 못한 수많은 예선 지원자들이 몰려 본선 진출자들을 선별하는 것도 힘들었다며 기쁨에 찬 교민이 만연했다. 지원자 모집에만 끝난 게 아니라 본선 대회에서도 전문 요리사와 인기 가수 못지 않은 실력을 뽐내 행사장 주위로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는 데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OKTN은 자체적으로 문화관광부와와의 협력으로 겨울 한국 관광 홍보 행사 및 스키, 의료관광 서비스 행사 전반을 주도하고 짜임새 있는 행사 진행과 품격 있는 기술 수준을 보여줬다.

교민방송인 K-TV(사장 박영수)는 2년 전의 경험을 살려



한국주간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흥겨운 풍물가락을 선보인 교민 풍물패인 '한바패'의 공연모습



어느 장소에서든 흥을 더한 한바패의 먹진 공연 모습



부인회 주관으로 열린 현지인 대상 요리경연대회 모습(10월 16일)



K-POP 콘테스트 노래부른에선 15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10월 16일)



부인회 주관, OKTN이 행사 진행을 맡은 K-POP 콘테스트 장면(10월 16일)

한국의 도자협회와의 협력으로 도자 전시회(간다리아 시티 몰)을 한 주간 개최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자체 평가다. 한 달여에 걸친 전시회 홍보와 치밀한 준비로 자칫 단조롭고 평이해질 수 있는 도자 전시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연일 수백여 관람객이 방문해 한국의 천년 도자의 정수를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도자 체험의 기회도 제공해 흥을 불어 넣었다.

교민문화단체인 한바패(대표 장방식)와 자카르타 한인어린이합창단(대표 김영희)도 행사 사이 사이 한국 전통 음악의 역동성과 은은한 향기를 불어 넣었고 특히 어린이합창단은 한-인니 우정 나눔 페스티벌에서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전통춤과 인도네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 라야' 곡을 열창해 현지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그 소임을 다했다.

미래는 우리의 역할!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에 민관이 함께 나아가야

문화는 저변, 이러한 문화교류를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과 인적협력 교류의 활성화, 또 이 둘을 기반으로 한 '경쟁과 행복의 상생'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에 대한 기대치에 너무 의존한 듯 하지만 금번 '인도



K-POP 콘테스트에 사이니곡으로 댄스부은 우승을 차지한 팀의 공연 모습(10월 16일)

네시아-한국 주간'은 이러한 이상향을 현실로 드러내기 위해 국가 브랜드위원회 주도로 준비된 행사인 것 만은 분명하다(이배용 국가 브랜드위원회장이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하지만 20여 개의 행사가 집중된 한 주간의 이모저모를 돌아보면 평범한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그 깊은 뜻을 알아채기란 결코 쉽지 않아 자칫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로 비쳐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경쟁과 행복의 상생'이라는 화두는 비단 한국만의 고민만이 아닌 국제적인 추세로 보는 것이 맞다.

과거 기득권을 지닌 국가나 민족의 타국과 타 민족에 대한 일방적인 사고의 주입과 경쟁위주로 심어낸 문화풍토는 현대라는 동시대를 사는 우리가 상생의 미래를 위해 점점 지양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쌍방향'의 문화 풍토를 심고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경쟁 풍토'에 앞서 절실히 필요하다.

'인도네시아-한국 주간'은 지난해 국가브랜드위원회 주최로 10월 18일부터 8일 일정으로 개최된 '베트남-한국 주간' 행사에 이은 그 두 번째 문화,경제,인적협력 행사로서 금번 한국주간과 같은 다

양한 행사를 향후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금번 행사를 통해 정부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한 교민민간단체들의 노력과 그 성과는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행사의 의도와 뜻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한인사회가 지니고 있는 숨은 잠재력이며 양국간의 화합과 행복을 위한 상생의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K-POP 콘테스트에서 멋진 공연을 선사한 비보이들의 모습(10월 16일)



한-인니 우정나눔 콘서트를 찾은 인도네시아 팬들이 환영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 배 용 국가브랜드위원장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사람의 마음은 그 ‘진정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한 주 동안 열리는 많은 행사들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인도네시아에 보여주고 양국의 미래를 열어갈 차세대들에게 ‘영혼의 울림’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복과 경쟁의 상생’이라는 철학적 나눔까지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한 주 동안 자카르타 도심 곳곳에서 열린 ‘인도네시아-한국 주간’을 주최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이배용 신임위원장과의 짧막한 인터뷰에서 그는 ‘행복과 경쟁의 상생’이라는 화두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가간 민족간 진정한 화합과 상생의 나눔 정신을 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와 11개 공관의 대대적인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인도네시아 행사가 양국간의 경제·문화·인적 협력관계의 폭넓은 증진과 ‘어메이징 코리아(Amazing Korea)’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해 감동의 장을 만들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브랜드위원회장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세기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뛰어왔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한 차원 끌어 올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내야 할 적기라며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주도를 하고 있기에 그 소임을 이루는 게 가능해졌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학자로서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바 있는 그는 교육자다운 해안과 안목으로 ‘부드러움이 곳 강하다’는 진리를 통해 역사는 부드러움이 지닌 힘으로 이루어져 왔었다는 철학을 필력 했다. 그는 이기고 뛰어넘으려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의 모습 보다는 바른 질서와 도덕이 있는 국가로 바로 설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와도 ‘양방통행’을 통한 ‘다층적 네트워크 형성’의 물꼬를 터 소통과 화합, 나눔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9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을 때 첫 인상은 무질서했으나 보로부두르 불교사원을 보고 감동해 이번 인도네시아 행이 ‘설레임’으로 다가왔다”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문화·인적 협력 관계 등에서 폭넓게 진행되는 금번 행사의 중심에는 한복-바닥 패션쇼에서부터 양국 유명 가수들이 함께하는 우정 페스티벌, 배드민턴 친선경기, 주인니한국대사배 태권도 대회, 한국영화축제 등 양국의 고유 문화의 특성을 존중하며 공유하는 장인 문화교류 행사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06년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거주 교민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곧 해외동포의 자부심과 실존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지 정보에 매우 밝은 교민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800만 해외동포의 네트워크를 통한 대한민국 브랜드 고취에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뜨거운 군도 인도네시아

신성철 데일리코리아 대표

인도네시아 군도는 뜨겁다. 전국에 산재한 활화산의 분화구는 수시로 고온의 수증기와 화산재를 뿜어내고 군도의 어디에선가는 매일 수차례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며 1년에 한두 차례는 대규모 화산폭발이나 강진이 발생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다.

아시아와 호주를 받치는 두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활발한 지각활동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게 된 축복받은 땅이지만 동시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고단한 땅이기도 하다.

‘불의 고리’(Ring of Fire)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국토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지진과 화산 폭발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했다.

지난달 25일 수마트라 서부해안 먼따와이 제도에서 진도 7.5의 강진에 이어 쓰나미가 발생했고 다음날 머라빠 화산이 폭발해 지금까지 총 6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자연재해는 개인과 국가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히지만 사회·정치적인 촉매가 되어 인간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지난 10년 새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로 아체 쓰나미를 들 수 있다.

2004년 12월에 인도양과 접한 안다만해에서 리이터 규모 9.3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어진 쓰나미가 인도양 연안 12개국

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아체주에서만 17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지구촌에서 발생한 가장 참혹한 재앙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양 쓰나미에 휩쓸린 국가들은 총 107억3천만 달러의 직·간접적 피해와 함께 복구비용으로 103억7천500만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해안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서민층이 쓰나미의 여파로 생업 기반을 잃으면서 200여만 명이 새롭게 빈곤층으로 추락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의 정신적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쓰나미 발생 이후에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나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주민들도 많다.

특히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아체주 등 일부 지역은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에 따르면 쓰나미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4배 가량 더 많이 희생되면서 극심한 성비 불균형 현상이 초래됐다. 옥스팜은 여성들이 수영이나 나무에 오르는 등의 피신능력이 남자들보다 약해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고 이는 피해지역의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쓰나미는 수십년간 지속된 내전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고 각국이 쓰나미 경보체계 구축을 서두르게 하는 등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반군과 정부군이 29년간 내전을 지속하던 아체주에서는 쓰나미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촉매가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반군인 자유아체운동(GAM)이 쓰나미가 발생한 후 8개월여만인 2005년 8월15일에 1만5천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혈분쟁을 종식시키는 헬싱키 평화협정에 합의한 것이다.

첨단과학장치로도 예측이 어려운 지진과 화산폭발은 국가시스템을 무력하게 만들고 불확실성을 키움으로써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삶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화산활동이 활발한 곳 가운데 하나인 자바섬 중앙에 위치한 영산(靈山) 머라삐 화산에는 머라삐의 수호자라 불리는 고(故) 음바 마리잔(83)이 최근까지 생존했다.

마리잔은 화산에 사는 영(靈)들과 소통하면서 화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족자카르타왕인 스리 술탄 하명꾸 부워노 10세로부터 머라삐 화산의 수호자로 공식 임명되기 했으나 그도 최근 화산폭발로 결국 희생됐다.



지난달 25일 머라삐 화산이 폭발해 40여명이 숨지고 7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폭발이 임박했다는 경고에도 대피를 거부했던 마리잔은 결국 뜨거운 화산재로 인해 까맣게 탄 시체로 발견됐다. 다만 그를 존경하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세로 숨진 그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을과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안타까워했다.

머라삐화산은 1930년 폭발해 1천300명이 사망했고 1994년과 2006년에도 폭발해 각각 69명과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화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폭발 직후에도 땅이 흔들

리고 분화구에 뿜어내는 열구름과 화산재로 숨기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당국의 대피 명령도 거부하고 발로 나가 화산재를 치우고 소와 염소에게 먹일 깨끗한 풀을 찾아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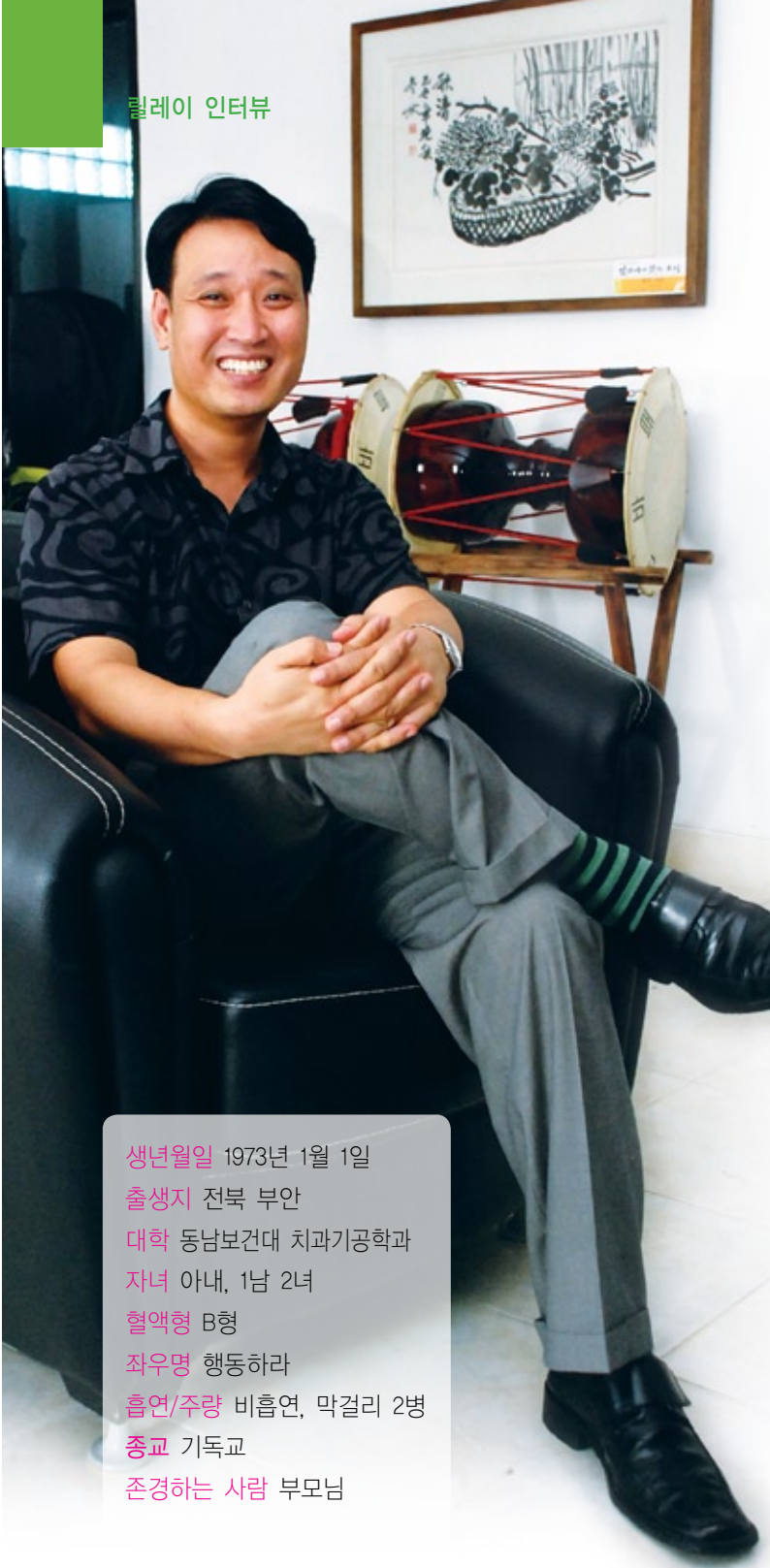
주민들은 화산이 폭발하면 당장은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가 크지만 폭발이 끝나고 땅에 스며든 화산재는 농지를 비옥하게 만들어 풍작을 가져온다며 화산 주변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에는 128개의 화산이 있다. 현재 활동 중인 A급 화산 78곳, 1600년 이후 분출하지 않은 B급 화산 30곳, 한번도 분출하지 않은 C급 화산이 20곳이다.

A급 화산은 수마트라에 13곳, 자바 19곳, 발리, 누사똥가라에 23곳, 술라웨시에 11곳, 말루꾸에 12곳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 산재해 있다.

지진학자들은 인도네시아가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어 앞으로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환경과 파괴로 재해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계속될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화산활동은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이자 삶을 이어가기 위한 도전이 될 것이다.



장방식

PT, Juindo Jaya 사장/한바패 회장

날 기다려주는 시간은 없다.
생각을 실천에 옮길때
비로소 기쁨이 날 찾는다.

김영민 편집위원

생년월일 1973년 1월 1일
출생지 전북 부안
대학 동남보건대 치과기공학과
자녀 아내, 1남 2녀
혈액형 B형
작우명 행동하라
흡연/주량 비흡연, 막걸리 2병
종교 기독교
존경하는 사람 부모님

“탁상공론 속에 빠져 자신을 허비하기 보단 ‘일단 해보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바로 알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평범해서 굳이 글로 옮기기조차 부끄러운 말이다. 하지만 현재를 여유롭게 키워가며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자신 있게 나눠주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평범한 말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다. 지금의 자신 속에 그러한 평범한 진리가 있었음을 장방식 씨는 고백한다.

그의 인도네시아 생활은 인도네시아에 처음 발을 딛게 된 14년 전 평범한 영업사원으로 시작했다. 치과기공사 전공 졸업 후 지인의 권위로 본인이 좋아하는 전문 사물놀이패 일원으로 전향하려 했지만 생계문제로 인해 매형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다. 7년 후 그는 분가해 나와 찌비농 지역에 작은 루꼬을 임대하고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의 남/여성용 패션 샌달, 구두, 단화용 합성피혁(PU, PVC, 악세서리) 수입전문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보고르 지역으로 사업장을 확장해 옮기고 인니 전역의 판매망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제법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누구나 그렇듯 그의 개인 사업 시작 역시 순탄치 않았다. 여러지인들로 부터 돈을 차용해서야 겨우 합성피혁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올 수 있었다. 또한 루꼬 임대에도 벽찬 재정 상태와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일 수 밖에 없었던 남자의 자존심...

장방식 씨는 그가 선별해 수입해온 신제품을 통해 현지 내수 시장에 몇 번의 유행을 불러일으킨을 경험이 있고 그 짜릿함을 항상 기억한다고 한다. 이러한 유행의 바람은 현지 재래 시장이나 헤로, 마타하리 등 중,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곳을 틈틈이 들러 꼼꼼히 체크한 노력의 흔적이었다. 사계절이 없는 인도네시아의 특성 상 르바란을 기점으로 형성된 유행이 3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르바란 기간 전후엔 소비자의 구매성향 분석에 집중한다. 여성의 신발을 유심히 관찰하는 그의 일상이 가끔 아내의 눈엔 여성에 대한 관심으로 내비치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뜨거운 눈총을 받기도 할 만큼 그의 마음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개인사업 8년차인 지금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키워냈다.

하지만 지금의 그가 있는 이유에 초창기 어렵던 시절 우여곡절 끝에 만난 한 중국인에서 비롯 되었다고 털어냈다. 당시 한국인 중개인을 통해 제품을 수입하고 있던 중국으로 그는 무작정 날아갔다. 그리고 중국인 사장과의 만남이 있고 난 후 그를 통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중국어를 한 마디도 구사하지 못하는 장방식 씨와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중국인 사장과의 만남은 당연히 손짓 발짓으로 이어졌지만 같은 나이에 금새 친한 파트너이자 친구 사이가 되었다. 조선족이 있으니 한국어로 팩스를 보내도 된다는 그의 배려



가 있었지만 장방식 씨는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후 6여 개월간의 레슨을 통해 익힌 중국어 실력으로 한자 한자 또박 또박 중국어 샘플 요청서를 적어 팩스를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날아온 샘플을 받고 답장으로 첫 주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시작한 중국어 공부가 3년 전부터는 매일 중국어 성경을 써 내려가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의 사무실 벽을 꽉 채운 한자가 적힌 액자가 유난히도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 관심이 많았지만 현지 거래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국인 사장에게 장방식 씨의 존재는 사업적 파트너 이상으로 특별했다. 초창기 현금 자금

유통이 쉽지 않았던 장방식 씨에게 그는 여러 차례 배려를 했고 장방식 씨는 그 배려에 대해 신용으로 화답해 나갔다. 환율의 변동이 심할 땐 서로 상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큰 관심을 서로 먼저 보여주며 성실한 관계를 나누어 갔다. 그리고 그는 근 몇 년 새 중국인 사장과의 신뢰를 통해 금세 안정적인 사업체를 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현지 거래처에게도 주저 없이 나누고 있는 중이다.

장방식 씨는 사업을 조금씩 즐기기 시작할 즈음부터 찾아온 시간적 여유가 지금의 그의 삶을 매우 만족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 중요무형문화제 제11-마호인 호남좌도임실필봉농악 판굿 전체 가락을 전수 받은 실력파이기도 한 그가 잠시 삶의 변방에 두었던 풍물에 대한 애착이 3년 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현재 상당히 많은 수의 회원을 둔 교민 풍물/사물놀이패인 ‘한바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급기야는 교민사회 구석구석을 누비며 우리문화의 정수와 향기를 퍼트리고 있는 장본인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사업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점점 윤택하게 만들어 가는 긍정의 요소가 되어 그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한 청년으로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민 청년들에게 할 말이 많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 속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습득해 내며 동시에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려는 각자의 노력의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에 문화 및 취미활동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문화생활을 등외시한 요즘 청년들의 세태를 질타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자칫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사치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는 오히려 다각적인 문화활동이야말로 끝 없이 자신 속으로만 함몰되어 한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되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며 각자의 사업과 삶에 있어서 일반화의 오류와 일상의 경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는 신선한 청량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좋은 통로이며 가족들과의 화합차원에서도 문화활동을 적극 추천했다. 또한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과 우리 삶의 질적 성장에도 큰 보탬이 됨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 활용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지에 달렸음을 강조한다.

“그냥 남아서 날 기다려 주는 시간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이든 이곳이든 문화활동이란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하는 우리들 각자의 시간관리차원의 문제입니다. 문화활동이든 사업이든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 시간을 쪼개 행하세요. 짬을 내서 행하는 사람에겐 보다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진지한 성찰

K-TV 특집 다큐멘터리 『오랑꼬레아의 아리랑』,
우리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담아낸, KBS 서울프라이즈 최우수상 수상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우리 한인들은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양국 협력교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앞을 향해서만 달려왔다면 이제 한숨 고르며 우리 한인사회의 역사와 이뤄놓은 성과,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올 11월 서울에서 열린 해외한국어방송사 대상 유일한 국제 프로그램 시상 축제인 'KBS 서울프라이즈'에 인도네시아 교민 방송인 K-TV는 우리 한인사회의 이야기를 담은 4부작 다큐멘터리 <오랑꼬레아의 아리랑>을 출품, 그 중 4부 <부제: 남겨진 가족들>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TV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 소식을 접한 박영수(오랑꼬레아의 아리랑 기획자, K-TV 사장)씨는 “역대 대회 중 출품작이 가장 많았고 방송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변방으로 인식되던 인도네시아 교민방송에서 처녀 출품에도 불구하고 최우수상을



‘오랑꼬레아의 아리랑’을 기획한 박영수 K-TV 사장. 그는 앞만 향해 달려왔던 한인사회가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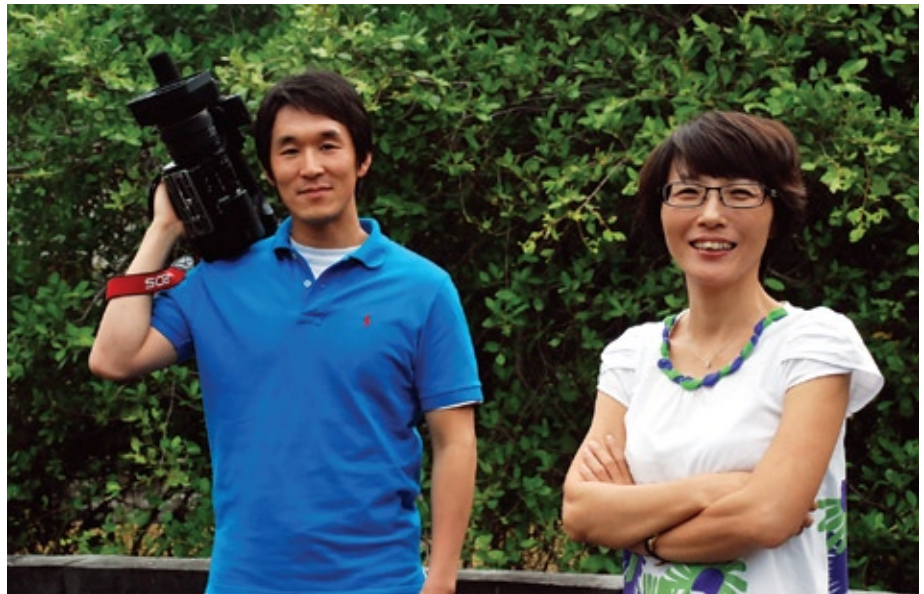
1. 한인사회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했던 김만수 씨의 아들 김명진씨와의 인터뷰
2. 1부 <한인역사기행> 편의 김문환 씨
3. 2부 <인도네시아인 드림> 편의 바뎀에서 조선 소 사업으로 성공한 박동희씨의 사업장 전경
4. 3부 <인도네시아속 작은 한국> 편의 바우바우 고등학교 설립 모습
5. 4부 <남겨진 가족> 편 속 인도네시아인 아내

수여 받게 되어 기쁘고 현지와 함께 가는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방송 매체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난 재능을 아낌없이 보여준 문우석 PD와 채인숙 작가, 박동영 서브작가 및 다큐멘터리의 총체적인 지형을 그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자료를 건네온 김문환 한인뉴스 논설위원과 메인 타이틀을 직접 써 준 손인식 서예가,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준 교민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4부작으로 기획된 K-TV 특집 다큐멘터리 <오랑포레아의 아리랑>은 길게는 한 세기 짧게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인과 한인사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포괄적으로 조명하는 우리 사회가 만든 최초의 영상물로 1부-한인역사기행, 2부-인도네시아인 드림, 3부-인도네시아속의 작은 한국(가제), 4부 남겨진 가족들로 구성되어, 1920년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내디딘 한인으로부터 시작해 2010년 현재 한인사회까지의 역사, 경제, 문화, 과제와 방향 등 네 부분으로 나눠 다루고 있다.

<1부 - 한인역사기행>은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부모를 떠나 이름조차 낯설었던 남방의 섬나라로 흘러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한 한국인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떤 이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실패한 망명자로, 또 어떤 이는 지배국의 군속으로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시작이 있는 후 90년이 흐른





문우석 PD와 채인숙 작가(위) 및 박동영 보조작가(아래)는 모두 우리 교민이다.

이들의 손을 통해 직접 제작되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성찰의지가 높아졌다는 점과 그만큼 성숙해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최대의 외국인 사회를 구성하게 된 우리 한인사회까지 오게 된 시간 여행을 한다.

<2부 - 인도네시아 드림>에서는 불모의 땅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의 신화를 이끌어 냈던 교민 1세대들과 그들이 이룬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금 인도네시아 드림을 가슴에 품고 현지로 진출하고 있는 젊은 신생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각도로 짚어내고 있다.

<3부 - 인도네시아속의 작은 한국(가제)>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류가 늦게 전파 됐지만 한글과 한국문화가 사랑 받고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영화나 드라마 등 연예콘텐츠에 의존하는 타국의 한류와 달리 한국문화의 본질에 접근하려 하려 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진실성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인도네시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숙한 한류를 뿌리내리기 위한 현재진행형의 노력들 또한 담아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4부 - 남겨진 아이들>에서는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홀어머니만을 두고 살고 있는 한인 2세대들, 그리고 그들을 홀로 키워내고 있는 현지 부인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통해 한인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자리잡고 있는 문제의식을 담아냈다. 제작진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내며 “우리의 무관심이 아직도 그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있다”고 한인사회 향한 잔잔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전파진흥원의 2010 해외한국어방송 자체제작지원사업에 기획 안이 당선되어 제작비를 지원받고 총 1년여 제작기간을 가진 <오랑포레아의 아리랑>은 잊혀져 있던 과거의 한 인자료 기록들과 사진자료들에 대한 발굴과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은 물론 멀리 술라웨시 바우바우시를 비롯하여 족자, 반둥, 바탐, 깔리만판 등 인도네시아 현장 곳곳을 취재해 가며 한인들의 다양한 생활상과 그들이 일궈낸 한국기업들의 생생한 활동 현장들을 담아 냈다. 현재 완성된 4부를 제외하곤 최종 편집작업 중이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4부 <남겨진 가족들>은 교민사회의 다소 민감한 주제인 이른바 ‘현지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제작 초기부터 많은 반감과 편견에 제작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현지처 문제는 특성상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민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덮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단 남녀간 개인적인 사건(?)으로 만 치부해 우리를 무관심으로 이끌어 냈음이 사실이다.

문우석 PD는 “여전히 한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196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영사관계 수립 이후 현지에 발을 디게 된 한인들은 불굴의 의지와 끈기, 개척정신으로 영욕의 반세기를 감내해 오면서 지금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영역에서 성공신화의 열매를 거뒀지만 그러한 영광의 빛에 가려 숨죽이며 살수 밖에 없었던 현지처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중요 주제로 다뤘지만 “누구를 위해 그러느냐? 무엇을 위해 그러느냐?”라며 우리 스스로가 뱉어내는 따가운 편견이 제작현장에서 가장 힘들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좋은 기획이고 또한 우리 한인사회에 있어서 시기 적절한 기획이다”며 냉철한 조언을 비롯 관련 자료들을 적극 지원해주신 김문환씨와 여러 교민들의 진심 어린 도움이 있어 무사히 제작을 끝낼 수가 있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거주 12년 재인 채인숙 작가는 “십 수년이 지난 지금도 빛 바랜 연애 편지와 사진들을 자녀들 몰래 훑쳐보며 이젠 훌 몸으로 자녀들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인들의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웠고 분노 또한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우리 제작진에게 기대감을 갖고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그들의 요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당시의 상황을 술회 했다.

우리 한인사회는 60년대 말 대한민국 해외 직접투자 1위 기업 코데코의 인니 진출을 촉매제로 해서 70년대 초 경남교역과 동화기업으로 대표되는 산림개발기업, 80년대 말 삼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90년대 LG,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 그리고 최근 자본집약기업인 포스코의 진출에 까지 이르면서 한인사회는 현재 그 수에 있어 최대 외국인 사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대의 외국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선 너무도 작은 우리의 한인사회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내려 했던 노력들은 소명감을 지녔던 몇몇 교민들과 한인사회의 급속한 양적 팽창이 연유가

되어 90년대부터 간간히 진행되어 때로는 ‘한인뉴스’를 포함한 교민 잡지와 신문사의 지면을 빌어 연계되거나, 때로는 단행본으로 엮여 한인사회 외적 팽창에 대한 내적 풍성함을 조금씩이나마 채워왔다. 그 결과 후세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료를 남겨나가고 있다.

아쉽게도 영상물 제작은 쉽게 그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실정이었다. 영상 전문인력 인프라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었지만 교민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더불어 상업성이 없으며 바라본 우리 스스로의 시각들도 큰 몫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제작 시도와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우수상의 영예까지 거머쥐게 된 K-TV의 열정과 현지 여건상 성우와 녹음 작업을 제외하고 작가(채인숙), 보조작가 등이 우리 교민들의 손을 통해 직접 제작 되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성찰의지가 높아졌다는 점과 그만큼 성숙해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보인다.

K-TV는 자체적으로 11월경 최종 편집이 마무리 되는 대로 교민 대상 시사회를 개최하고 K-TV를 통해 전체 4부작을 순차적으로 방영할 계획이며 서울프라이즈 수상작인 <오랑꼬레아의 아리랑-4부 남겨진 가족들>은 KBS 지상파, 위성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숨가쁘게 앞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 한인사회, 이젠 우리가 이뤄냈던 성과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것과 동시에 한 발짝 더 멀리 더 깊게 보기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여유를 지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성골, 진골

김 문 환 논설위원

신라시대 신분제인 골품제도에 성골(聖骨)과 진골(眞骨)이 있다. 즉 부모의 양쪽이 모두 왕족인 경우 성골이라 하고, 그 중 한 쪽만 그럴 경우 진골이라고 하였다. 지금 시대에는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의 요건을 갖대로 삼아 통치권자를 중심으로 이에 가장 근접한 그룹을 '성골, 진골'시 하는 경향이 있다.

1945년 8월 17일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한 이후 수카르노, 핫따 정권은 방대하고 복합적인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국내외의 도전을 받게 된다. 변방의 도서지역 종족들은 독립을 외치고 나왔고 네덜란드 잔류세력들은 반란을 일으키며 신생국의 통합을 방해하여 왔다. 이에 대해 강한 카리스마로 대응하는 수카르노의 목숨을 노린 테러가 자행되어 항상 그의 신변은 위태로운 상태였다. 심지어는 1958년 대일 청구권 협상 타결을 전후하여 방문한 일본에까지 인도네시아 테러범들이 쫓아 들어가 수카르노가 투숙한 제국호텔(Imperial Hotel) 인근에 있는 니가츠 호텔에 진을 치자 일본의 야쿠자 그룹에 경호를 의뢰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1957년 11월 초등학교생인 메가와 띠의 학교행사를 참관하고 나오는 수카르노를 향하여 수류탄을 투척하여 무고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11명이 희생된 '찌끼니 사건(Peristiwa Cikini)'을 거쳐 1962년 5월 이슬람 명절(Idul Adha) 대통령궁 열린행사에 수카르노의 목숨을 노린 이슬람 국가주의(Darul Islam) 테러분자가 행사장에 침투하여 총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목숨이 이처럼 백척간두에 놓이게 되자 수카르노는 이 사건 직후 '짜끄라비라와 연대(Resimen Tjakrabirawa)'라는 명칭을 붙인 대규모 경호부대를 창설하게 된다. 이 특수부대는 육, 해, 공, 경찰 4군에서 각각 1개 대대씩의 정예요원을 차출하였으며 별도로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사적으로 보호하는 1개 분견대(Detasemen Kawal Pribadi)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쁨조' 격인 음악, 무도, 악기연주 등의 예능분야 요원까지 합하여 그 규모가 총 4천명을 상회하였다. 특히 300여명의 신변경호원은 동족출신이거나 이에 준하는 성골적인 배경이 있어야 했다.

수하르토 정권 시대에 군인, 또는 고위관료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었다. 첫째 출신지가 수하르토와 영부인의 고향인 중부자와 욕야카르타(Yogyakarta)나 솔

로(Solo)이어야 했으며, 사관학교를 나와 대통령 근위장교(Ajudan Presiden), 특전사(Kopassus), 전략사령부(Kostrad) 중 한 곳 이상을 섭렵해야 했다. 상기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면 소위 성골(聖骨) 신분으로 분류되어 출세를 향한 우선순위가 보장되는 셈이다. 만약 욕야카르타와 솔로 출신이 아니라면 최소한 자와의 기타지역 출신은 되어야 진골(眞骨) 정도의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명문가의 장남으로 자카르타에서 태어나 대통령의 사위가 되어 특전사령관, 전략사령관을 거쳐 승승장구하며 대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빠라보워(Prabowo) 장군이나, 대통령과 동향으로 영관장교 시절까지는 평범한 시절을 보내다 대령으로 승진하면서 대통령 근위장교를 무려 4년간이나 수행한 후 초고속으로 4성 장군까지 승진하여 국군사령관이라는 정상에까지 오른 위란또(Wiranto) 장군은 대표적인 성골형 스펙에 부합되는 출세가들이다.

그런데 최근 유도요노 제2기 정권의 인사패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수하르토 정권과 유사한 현상이 재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러닝메이트로 직접 선택한 부디오노 부통령은 SBY의 고향인 동부자와 주 빠찌탄(Pacitan)에서 얼마 멀지 않은 블리따르(Blitar) 출신이며 최근 신임 국군사령관으로 선임된 아구스 수하르토노(Agus Suhartono) 해군제독도 부디오노와 같은 블리따르 출신이다. 얼치락 뒤치락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을 불허하였던 신임 경찰청장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낙점받은 띠무르 빠라도쁘 장군도 동부자와 주 줌방(Jombang) 출신이다. 줌방은 익히 알려진 대로 인도네시아 최대 회교단체인 NU의 발상지이며 구스 두르 전대통령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2009년 11월 빗 투성이의 공룡 국영기업인 전력공사(PLN) 사장에 깜짝 발탁된 다흘란 이스칸(Dahlan Iskan)도 동부자와 최대 언론사인 자와 포스(Jawa Pos)의 사주로서 동부자와 주 마게탄(Magetan) 출신이며 그의 사업체는 동부자와 주도 수라바야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현 각료





중에서 동부자와 출신으로는 정치안보조정장관 조꼬 수안또(마디운), 상공회의소(KADIN) 회장을 지내다 입각한 산업부장관 히다얏(쑤방), 인력 이주부장관 무하이민 이스칸다르(쑤방), 교육부장관 모하맛 누(수라바야)가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동부자와 출신 기업가들이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1800년대 말 중국 후지안성에서 난민선을 타고 건너와 수라바야에 정착한 이래 그 후손들에 의해 자수성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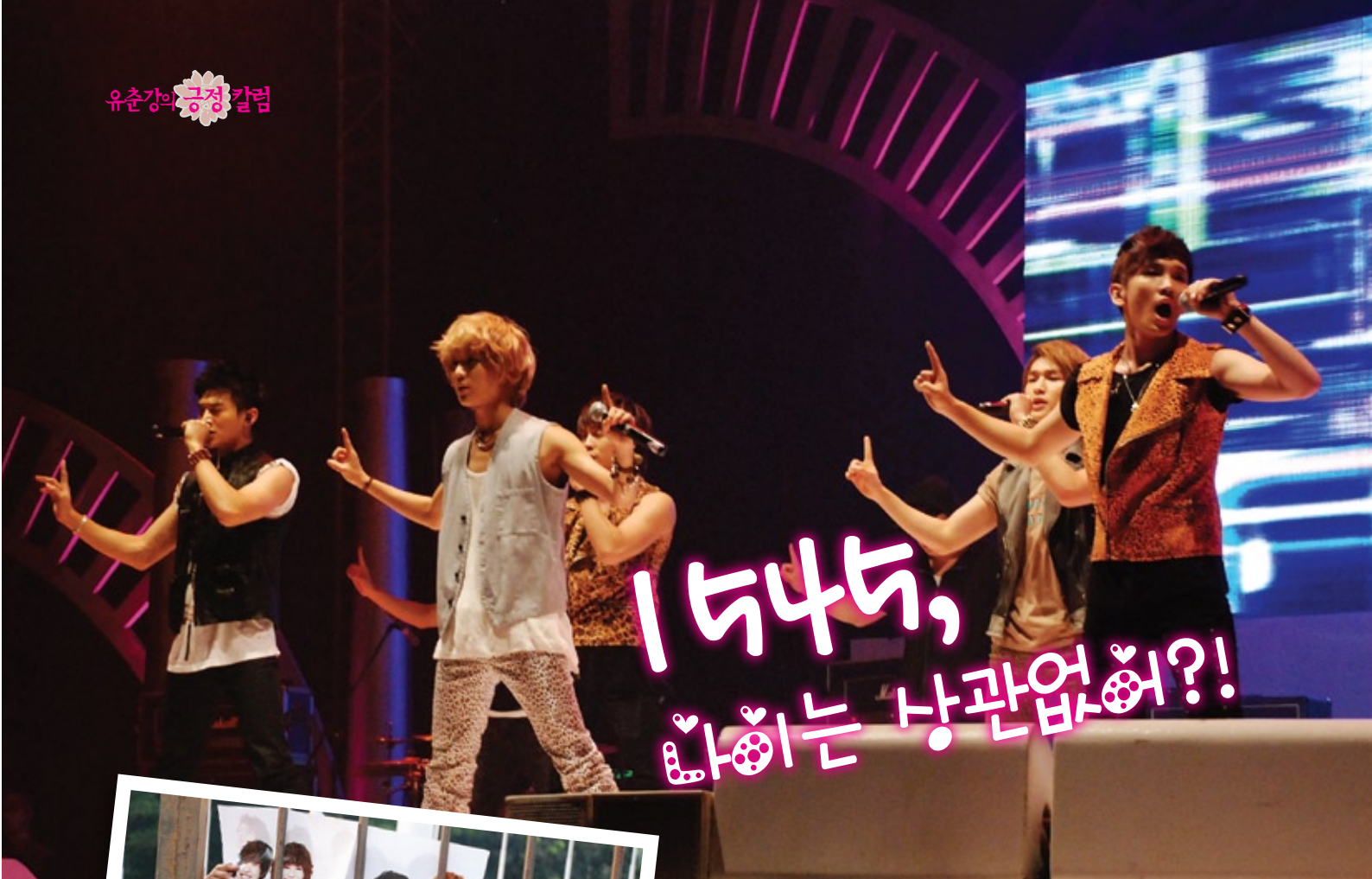
본 담배 재벌 삼뿌르나(Sampeorna) 그룹은 2005년 담배사업부를 미국의 필립 모리스사에 매각하여 얻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통신, 농원, 금융산업 등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으며 1986년 수라바야에서 개장한 튠중안 플라자(Tunjungan Plaza)상권으로 인도네시아 최대상업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빠구원(Pakuwon) 그룹은 최근 남부 자카르타 지역에 간다리아 시티(Gandaria City)라는 거대한 쇼핑몰을 개장하였다.

그런데 최근 우여곡절을 겪으며 임명된 신임 경찰청장의 인선 과정을 보면 보스니아를 향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강한 수구초심(首丘初心)을 읽을 수 있다. 1995년 구 유고연방이 분리되면서 이슬람교도에 대한 인종말살 행위가 자행되어 11만 명의 희생자와 30만 명의 난민을 초래한 종교분쟁지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Herzegovina) 주둔 유엔 군사감시단장(Military Chief Officer)의 직위에 유도요노 준장이 임명되어 국위를 선양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도요노의 직속 상관으로서 보스니아 문제를 담당하던 유엔 고위관리(Special Envoy)는 가나 출신의 코피 아난(Kofi Anan)이었으며 그는 직후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 그 해 11월 유도요노 준장이 구 유고연방의 제2 도시였던 자그레브에 부임하여 650명의 다국적군을 지휘할 때 인도네시아군에서는 공병, 의무, 연구 병력과 더불어 40여명의 경찰간부도 함께 파견되었다. 이 당시 경찰병력에 포함되었던 요원들이 바로 오늘날 경찰청에서 보스니아 인맥을 형성하면서 요직에 등용되어 있는 이또 수마르디 중장(Ito Sumardi, 형사본부장), 띠무르 뿌라도뽀 중

장(Timur Pradopo, 경비본부장), 와효노 중장(Wahyono, 정보본부장) 등이다. 최근 경찰청장 자리를 놓고 유례없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던 주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으며 결국 동부자와 출신으로 보스니아 인맥인 띠무르 장군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요즘 SBY는 주로 로열 골프장(Royale Golf Club)이나 씨케이아스(Cikeas)에서 가까운 에메랄다 골프장(Emeralda Golf Club)에서 주말의 시간을 보낸다. 이 주말행사에 단골로 참여하는 멤버에는 조꼬 수안또 정치안보조정장관, 헤르만 뿌라윗노 전 공군참모총장, 이맘 자끼 예비역 해군중장, 수판또 국가정보원장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육, 해, 공, 경찰군 출신의 국군사관학교 1973년도 임관동기생들이다. 생도시절의 고행과 무용담을 격의없이 나누게 되면 스트레스까지 날려보내는 유쾌한 시간이 될 것이다. 육군 수석졸업생인 SBY와 함께 수판또 장군은 경찰군 수석졸업생이다. 수석 졸업생 이야기라면 샤프리 삼수딘(Sjafrie Sjamsuddin) 장군을 빼 수가 없다. 그는 졸업반이 되면서 생도대표직을 SBY로부터 인계 받았고 SBY의 뒤를 이어 1974년에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다. 샤프리 소장은 1998년 '5월 폭동' 당시 지역치안을 책임진 자카르타 지역사령관(Pangdam Jaya)이었으며 그는 당시까지만 해도 대권을 눈 앞에 둔 뿌라보위 장군의 최측근으로서 처신하였지만 위란또와 유도요노 라인의 군맥에 밀려 뿌라보위가 몰락함과 동시에 군복을 벗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벌써 12년이 넘도록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SBY 제2기 조각과정에서 내각장관 하마평에까지 오르더니 현재 신설된 국방부 장관(Wakil Menteri Pertahanan)직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이던 SBY와 뿌라보위는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감을 나누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아예 샤프리 장군을 자신의 내각에 포용하였는데 '5월 사태'를 직접 체험하신 독자들이라면 상황이 이렇게 반전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한번 수석은 영원한 수석'이라는 엘리트 의식이나, 또는 '우리가 남이가?'와 같은 한국적 동류의식이 마음의 강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1545, 나이는 상관없어?!



요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초절정이란 말이 생각난다. 근자에 내가 본 에밀리아가 딱 그 지경이다. 그리 사랑해마지 않는 샤이니가 딱 세 곡을 부르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오기 때문이다. 오직 그 초식남들을 먼발치에서 볼 생각에 통 잠이 오질 않나보다. 여기서 초식남이라 함은, 도무지 근육이라곤 없고, 슬림한 몸에 소녀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패션으로 두루두루 무장한 남자 혹은 청년들을 말한다.(석기 시대였다면 이들은 아마 마초남이 사냥 간 사이 애들과 여자들을 보거나 그도 아니면 천하에 쓸모없는 종자로 찍혀서 왕따가 됐을 지도 모른다.) 세상을 잘 만난 덕에 바야흐로 이들의 시대가 도래 했다.

요즘은 예전에 이덕화가 모 회사의 광고에서 멸절한 엘리베이터를 두드리며 힘자랑하던 비주얼은 도통 먹히질 않은 세상이다. 그랬다간 당장 경비원이 달려 올 테니. 그것도 아니면 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실족하거나. 말인즉 마초맨은 오래전에 멸종된 세상이다.

이리 된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지금은 수렵과 사냥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여자들도 우수한 교육과 시스템 덕에 충분히 파워를 가졌고, 혹은 재능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기에 더 이상 힘 있는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결론적으로 초식남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 아 물론 근육을 키운 아이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이미 얼굴과 패션은 초식남에 가깝다. 암튼 대표적 초식남인 샤이니가 딸랑 세 곡을 부르기 위해 납시신다니 딸들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저축이란 게 있었다. 누구나 다 공식적으로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저축을 하는 것이다. 그 시절에 나는 레이프 가렛 방한 콘서트에 가기 위해 그 저

축할 돈을 몇 개월 뺏쳐서 티켓을 사려는 발칙한(?) 계획을 세웠다 들켜서 엄마에게 엄청 터진 적이 있는 나로선 작금의 상황에 큰소리 칠 입장도 아니다. 늘 말하지만 죄다 호르몬이 시켜서 한 일이다. 얼마 전 모 프로그램에서 추억의 화면으로 레이프 가렛의 공연 모습을 스치듯 보며주었는데 어찌나 반가웠는지. 그러니 엄마가 딸에게 할 말이 없는 셈이다.

내내 친구 엄마 따라서 간다고 큰소리치던 딸애가 다급한 목소리로, 갑자기 막무가내로 티켓을 구해달라고 해서 바로 이틀 전에 짧은 인맥을 통해 겨우 2장을 구해 줬다.(티켓을 냉큼 구매한 분께 감사!) 그이후로 콧노래를 부르더니, 전 날은 아주 좋아 죽는다. 부드러운 온유, 캔디보이 태민을 놔두고 이젠 참 싹뚱바가지 없어 보이는 키와 종현이 두 놈(?)에게 필이 팍 꽃혔다. 근데 그걸 아나 모르겠다. 그렇게 샤프한 척, 터프 한척 하는 분(?)들이랑 살다보면 샤프에 찢리고, 터프에 굽힌다는 걸 말이다. 하긴 그걸 안다면 소녀가 아니라 아줌마 일게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남자는 우습게 보이고 살짝 이기적이고 싸가지는 살짝 없는, 그러나 은근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그들, '나쁜남자들' 이 그 나이엔 눈에 들어오는 법이다. 과거의 불후의 명작 만화 <캔디>를 봐도 그렇고 <베르사이유의 장미>와 <올웨이스의 창>을 봐도 그렇다.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테리우스 아닌가. 하긴 요즘은 차도남 이라고 해서 차가운 도시남자가 대세란다. 허나 차가운 거 너무 좋아하다가 동사하는 수가 있다. 물론 정신적으로 말이다.

하긴, 동방신기의 시아준수에서 미키유천으로 노선을 바꾼 아줌마도 있으니 내가 그닥 큰소리 칠 입장 또한 아니다. <미로틱> 혹은 <롱넘버>를 메인 송으로 들으며 이거야말로 불후의 명곡이라고 감탄을 하니 말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배우라면 <8월의 크리스마스>에 나왔던 한석규 나 <봄날은 간다>의 유지태 정도의 아우라는 있어야 된다고 철썩 같이 믿는 엄마이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말이다. 그 엄마에 그 딸이지.

드디어 고대하던 샤이니가 오던 날. 어디서 들었는지 자

카르타의 물리아 호텔에 묵을 거라는데, 그리로 뷔페를 먹으러 가자신다. 혹시나 만날까 싶어서.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왜 얼굴 내밀고 뷔페를 왔다 갔다 하겠는가. 룸에서 시켜먹든가 아니면 살짝 한식당으로 가겠지. 그런 말은 귀신 같이 들으면서 왜 내 말은 종종 씹는지 모르겠다.



유춘강/소설가,카피라이터

요즘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교육부 모델로 선정해서 매일 CF를 내보냈으면 정말 좋겠다고. 카피는 대충 이러하다. '공부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열공하세요!' 부모의 말 한마디 보다 아이들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이지 좀 통하지 않을까?

샤이니의 일 거수 일 투족에 멤버의 생일 까지 기억하는 딸이 엄마 생일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아홉 살까지는 선물도 주고 편지도 썼는데.....뭐 어느 분의 말처럼 평생 할 효도는 여섯 살 이전에 다했으니 더 이상 기대를 말아야 하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가이드나 잘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그 친구 같은 아빠, 정보력 빵빵한 엄마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력 빵빵엔 도무지 쟁쟁이란 말씀.

소원성취를 하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야말로 난리다. 키와 종현이를 만져봤단다. 이거야 원. 하기가 웃길 한번 스쳐도 전생의 몇 겁 인연의 결과라는데 바로 코앞에서 샤이니 총각들을 보고 만지기까지 했다니 기절할 만도 하겠다.

여하간에 한국와 인도네시아 우정나눔 콘서트 덕에 딸과 엄마가 눈 호강을 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야말로 모처럼 만의 안구정화인 셈이다. 인도네시아 처자들도 그러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요원의 들불처럼 한류가 번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웹사이트에서 한인뉴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 커버스토리 **한·인니 다층적 미래협력 열리다**

- 인도네시아-한국 주간, 현지에 잊지 못할 인상 남겨

14. 시사 인도네시아 **뜨거운 군도 인도네시아**

16. 릴레이인터뷰 장방식 PT.Juindo Jaya 사장, 한바패 회장

18. 특별취재 K-TV 특별다큐 오랑꼬레아의 아리랑
 KBS 서울프라이즈 최우수상 수상

22. 차 한잔 마시며 **성골, 진골**

24. 유춘강의 **긍정 칼럼 1545, 나이는 상관 없어**

30. **한인사회 소식**

- 봉제협, 제2회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 제9차 세계한상대회, G20 성공기원하며 성료
- 임택선 씨, 동부자바주 한인회장 연임
- 땅그랑한인회 여성의 날 창립, 여성교민의 밤 개최
- 롯데마트 라뚜플라자 점, 오픈 대성황
- 교민들, 나환자들 위한 사랑의 마을 짓는다
- Kocham · 한국거래소, 한국증시 상장설명회 개최
- 코린도장학재단, 인니대학생에 장학금 수여
- 포스코, 일관제철소 부지공사 착공
- 하나은행, 교민초청 경영전략세미나 개최
- KOICA, 연료전지 발전소 시범사업 협의의사록 서명
- JKS 소식
- 인니문화연구회, 문화탐방 및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Contents

39. 인니문화연구회 공모전 대상 수상작

- 바다를 닮은 호수 다나우 또바 Danau Toba
- 북봉 北鳳

45. 11월 공지사항

49. 생활정보

54. G20 성공적 개최, 재외동포들의 힘 모아야

56. 동호회 탐방 '사건이야기'

59.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바다의 집시 바자우 발라우족

63. 인도네시아법률해설 민사소송법 3

66. 대사관 임시 청사 이전 안내

67.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68. 이병수의 보험교실 보험의 큰 두 갈래, 생명보험 & 손해보험

70. 와칭코리아

73.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76. BOOKS

76. MOVIE



56



58



18



38



16



14



56



봉제협 제21회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 우천 불구하고 많은 회원사 적극 동참

인도네시아 한인 최대의 업종 협의회인 재인니한국봉제협의회(회장 배도운)가 지난 10월 7일 봉제협회 창립 21주년을 기념해 자카르타 인근의 인터내셔널 골프장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봉제협 회원과 초청인사 160여명이 참여해 치러진 골프대회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등 악천후 속에서 열렸지만 무리 없이 라운딩을 마칠 수가 있었다.

골프대회를 마치고 배도운 회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또한 적극적인 협찬에 감사 드린다”며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봉제협 초청으로 참석한 한인회 승은호 회장은 “항상 많이 참석해줘서 고맙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한인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봉제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빌었다.

봉제협회는 석찬을 겸한 저녁시간 모든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버카시, 보고르, KBN, 수카부미 등 한 해 동안 회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준 8명의 우수사원에 대한 표창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골프대회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각 회원사들이 찬조한 상품들을 건네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 B 조로 치러진 골프대회에서 이동준 씨가 영예의 메달리스트를 차지했고 강대승, 김동준 씨가 각 조 우승을, 김창수, 이우규 씨가 퍼스트러너 상을 차지했다.

KOGA 골프대회 시상내역

Medalist	이동준	
Nearest	오성태	
Longest	김기현	
	A조	B조
Winner	강대승(-5)	김동준(-6)
1st Runner	김창수(-4)	이우규(-4)
2nd Runner	김재열(-3)	손도현(-3), 엄재광, 박재현

우수사원 표창자 명단

이름	직책	회사명
김진숙	부장	PT. Vision Land Semarang
석순이	부장	PT. Tunggal Indotama Abadi
전병철	부장	PT. Doosan Jaya Sukabumi
이종혁	과장	PT. Dada Indonesia
성재승	상무	PT. Rismar Daewoo Apparel
이해득	부장	PT. Hanol Indonesia
김선숙	부장	PT. Hansol Indo
임현수	차장	PT. Shinta Woo Sung





제9차 세계한상대회, G20 성공기원하며 성료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재외동포재단주최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9차 세계한상대회'가 '한상 네트워크'의 힘을 과시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번 대회 동안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2068건의 상담과 2억5656만 달러의 상담금액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특히 지자체와 지역 기관·단체들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잇따르며 '네트워크 장'의 면모를 과시했다고 자평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대구시의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해 대구지역 병원과 한상단체 간, 한상과 한상간의 업무협약 등 27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대회는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이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드는 계기가 됐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한상(韓商)과 국내 경제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업종별 비즈니스 세미나 등 각종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20일 오후 세계한상대회가 진행되는 대구 엑스코에서는 동남아한상연합회, 샌프란시스코 경제인협회, 이스트베이한미상공회의소, 한아상공인연합회, 대구상공회의소 간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420개 기업체와 기관에서 참여해 452개 부스가 설치됐던 기업전시회는 참여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별 상품관'에서 '업종별 테마 상품관'으로 바뀌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역시 400여개의 업체가 활발하게 매칭을 진행했다.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은 "기업전시회와 함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이 활발히 진행됐고, 업종별 세미나에서도 관련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올해 대회를 통해 동포기업인과 국내 중소기업인 모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성은 대회장은 "국내 기업과 한상이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결속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한상 네트워크가 탄탄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10차 세계한상대회는 내년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임택선 씨 동부자바주 한인회장 연임

지난 10월5일 재인니동부자바주한인회에서는 현 23기 (2009. 1.1 - 2010. 12.3.) 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 24기 (2011.1.1 - 2012.12.31) 한인회장 선출이 있었다.

재인니동부자바 한인회 회칙 상 회장 선거는 회장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차기 신임회장을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회장 선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단 자문, 운영위원 55명 중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 삼분의 이 이상 득표를 하여야만 회장이 선출 될 수가 있다. 단, 선거인단인 자문, 운영위원 중 국외, 혹은 지방,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 하였을 경우 참석으로 간주를 한다.

이에, 제24기 회장 선거를 실시한 바 총 선거인 단 55명 중 약 65%인 36명의 선거인단이 참석을 한 가운데 현 한인회장인 임택선씨가 만장일치 추천에 의하여, 재 추대가 되어 재인니동부자바 한인회 제 24기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회장으로 연임 되었다.

임택선 신임회장은 “이번 2010년 10월에 부산광역시 상공회의소와 수라바야 상공회의소, 그리고 양 시의 예총 자매결연, 경상남도 상공회의소와 동자바주 상공회의소 간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많은 기업체를 동자바주로 유치하며, 기 한인진출기업 및 신규 한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원을 하며, 동 한인회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며, 교민 분들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에 올 12월 17일 거행되는 동 한인회 2010년 송년행사에는 부산광역시 예총 산하 난타 팀을 초청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교민 분들과 한인진출 기업체에서 종사하시는 인도네시아 현지직원들을 위한 위로의 공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항상 재 인니 동부자바 한인회를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는 재인니 한국대사관 김호영 대사님을 비롯한 전 직원, 재인니한인회 승은호 회장님과 회장단, 그리고 각 지역 한인회장님과 전 교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더 더욱 동 한인회가 발전 할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 한인회장 임택선씨는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지 올해로 17년째가 되었으며, 홍익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전산사무관으로 1976년부터 1989년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현재 목재 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동 한인회 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 한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부산 광역시 및 경상남도 해외통상 자문위원과 영사협력원을 맡고 있으며, 기 재임기간 중에 수라바야 한글학교 및 교민 민원봉사 활동에 주력을 하며, 대외협력관계에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동자바주, 수라바야시 산하 공무원인 경찰, 이민국, 행정기관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져 교민 권익보호에 앞장을 섰다. 그리고, 수라바야 시내 한 복판에 수라바야시로부터 부지 약 2,700m²를 기증 받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한국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탑을 건립하여 2010년 5월8일에 준공 및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땅그랑한인회 여성의 날 창립, 골프대회·여성교민의 밤 개최

땅그랑한인회는 창립기념의 일환으로 여성 교민을 위한 행사를 2010년 10월12일 임페리얼골프장에서 300여명의 교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세호 땅그랑한인회장, 하연수 수석부회장, 재인니한인회 승은호 회장과 신기엽 수석부회장,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자유총연맹 인니지회 박동희 회장을 비롯한 많은 초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1부 골프대회와 2부 여성교민의 밤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골프대회는 100명의 땅그랑 거주 여성골퍼들이 핸디기준 18이하 A 조, 이상 B 조로 나뉘서 기량을 겨뤘다.

이 날 78타를 치신 손미경씨가 메달리스트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A 조 우승은 정지현씨, 준우승은 위경숙, 김미숙씨가 주인공이 되었으며, B 조 우승과 준우승은 강경의씨와 신애순씨가 차지했다. (Nearest 쿤태심, Near to the line 박락희)

2부 행사는 저녁만찬 후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으로 진행 되었다.

노래자랑은 10명의 땅그랑 여성교민이 참여하여 그간 숨겨둔 노래실력을 맘껏 발휘하는 자리였다.

참가자가 노래를 하는 동안은 지인들은 함께 춤추고 응원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애의 대상은 노사연의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열창한 강경의씨에게 돌아갔고, 이석숙 전민심씨가 각각 1등과 2등에 마지막으로 주자로 나와 Tears를 열창하신 김경자씨는 인기상을 받았다.

이 날 강경의씨는 골프우승과 노래자랑 대상의 영광을 안으며 땅그랑 최고의 히로인으로 등극하였다.

또한 이 날 행사에는 한국왕복항공원 5장을 비롯하여 LCD TV 등 많은 협찬품 추첨이 있었고 여성의 날에 참여한 여성교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땅그랑한인회 총무단은 이번 행사에 경품을 협찬해주시는 땅그랑한인회 임원분 및 귀빈여러분들과 특히 매번 땅그랑한인회 행사에 협찬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 가루다항공사에 감사의 말 또한 잊지 않았다.



롯데마트 Ratu Plaza 店, 오픈 대성황

롯데마트가 10월 7일 Ratu Plaza 쇼핑몰에 인도네시아 Retail 2호점이자 인도네시아 21호점인 롯데마트 Ratu Plaza점을 오픈하였다.

롯데마트 Ratu Plaza점은 지하 3층~ 지상5층 규모의 쇼핑몰 지하1층에 위치하며 영업면적은 약 6,148㎡(1,860평) 규모이다. 또한 쇼핑몰 단지 내에 지상 19층 10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현재 거주 중에 있으며, 32층 규모의 오피스 타워 역시 42개 회사들이 입주해 있어, 자카르타 시내에서 주목받는 핵심 상권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8월 5일 Gandaria City쇼핑몰 내에 Retail 1호점을 오픈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인니고객들을 대상으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먹거리가 풍부한 차별화된 매장을 선보인 바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 롯데의 고객 서비스는 인도네시아 유통업계에서 강력한 차별화 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마트 업계 최초로 “Lotte Mart Point Card”를 도입하여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Cash-Back제도를 시행하고, 다양한 시식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근하고, 편리한 쇼핑 공간”으로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자리 매김하고 있다.

롯데마트 Gandaria City점에 이어 오픈하는 Ratu Plaza점은 고객 안전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매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기존 건물 공조시설들을 모두 교체 시공하여, 오히려 매장 내부는 신선한 빵 냄새로 고객들의 후각을 자극하고 있다. 이처럼 쾌적한 쇼핑환경 역시 고객을 배려하는 인도네시아 롯데마트만의 차별화 요소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또한 금번 Ratu Plaza점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400여종의 식품 및 비식품을 파격가로 제공함으로써 쇼핑의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중 60개의 특별 할인 상품은 이전 쇼핑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격으로 그 행복을 더 하였다. 특히 고객 중심적 마케팅, 즉 BNI 은행과

연계한 오픈 당일 전상품 구매시 10% 할인,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용품들로 구성된 Lucky Draw, 구매 금액에 따른 다양한 사은품 증정, 롯데마트 Point 카드 소지자에 대한 특별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 오후 쇼핑에 익숙한 고객들을 이른 아침부터 쇼핑토록 함으로서 인도네시아 고객의 쇼핑 패턴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또한 주변 오피스 고객들을 배려한 Time Service는 주변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롯데마트의 “기존 관행 깨기” 식 마케팅은 Gandaria City점에 이어 이번 Ratu Plaza 오픈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교민들, 나환자들 위한 '사랑의 마을' 짓는다

Tangerang 지역 레크면 보종 마을에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 나환자들을 위해 “사랑의 마을”이라는 나환자촌을 건설하기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10월 3일 기공식을 가졌다. Tangerang 한인회 수석총무를 맡고 있는 이 태복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후원회는 인도네시아 자유 총연맹 및 PT. Starnesia가 첫 후원자로 나섬에 따라 활발한 사회 봉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랑의 마을”은 몇 년 전부터 Tangerang 지역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나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식 및 기타 봉사 활동을 하던 김진익 목사의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나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환자들의 거처를 만들게 된다. 김진익 목사의 모친이 기부한 2억여 루피아로 4,000㎡의 부지를 확보하고 자금이 없어 건축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랑의 마을”은 이번 후원회 조직으로 인해 큰 힘을 얻어 그 첫 단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나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을 짓게 된다. 또한 그 부지 중앙에는 교회를 건축하고 나환자들의 신앙 생활을 돕기도 할 예정이다. “사랑의 마을”은 지난 2007년 Tangerang 지역의 한인 교회 성도들을 주축으로 자그마한 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도 “사랑의 마을”을 후원하기로 해 후원회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있었던 기공식에서 이태복 후원회장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멸시받는 나환자들을 위해 우리 한국인들이 손을 모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한 기업 정신은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며 이 환원된 물질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사용될 때 올바른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랑의 마을” 건설을 위해 뜻있는 한국 기업 및 한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절실히 요망된다.

인도네시아 고객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새롭고, 다양하면서도 품질 좋은 친근한 매장”으로 각인되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고객에게 사랑받는 LotteMart가 될 것이다.

롯데마트는 2008년 11월에 네덜란드계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체인 ‘Makro’(19개점)를 운영하는 ‘PT Makro Indonesia’社의 지분을 100% 인수해 한국 유통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유통시장에 진출했으며, 지난 2010

년 5월 기존 19개점의 상호를 “Makro”에서 “Lotte Mart Wholesale”로 변경, 인도네시아 고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문영표 법인장은 “롯데마트 Ratu Plaza店 오픈을 발판 삼아 적극적인 인니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Kocham • 한국거래소, 한국증시 상장설명회 개최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5일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공동후원 하에 자카르타 리즈칼튼 호텔에서 인니 한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증시 상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금번 상장설명회에는 한인 금융사 및 교민 기업대표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와 증권 3사는 한국 증권시장과 상장안내, 인수기관의 역할, 외국기업 상장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병재 한국거래소 상무는 “지속적인 현지 마케팅을 통해 외국기업들의 한국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며 “상장기업들의 국적다변화를 위한 미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등에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린도장학재단, 인니 대학생에 장학금수여

코린도장학재단(정무웅 이사장)은 10월 5일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5명이었다. 인도네시아대학교에서 거행된 장학금 수여식에는 Kamarudin 학생처장과 Christin 한국어과 과장이 참석하였다. 정무웅 재단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관계증진에 이바지 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한국 진출기업에 많이 취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Kamarudin 학생처장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감사하며 장학금 지원규모를 더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동 재단은 금년에 인도네시아대학교 외에도 가자마다대학교, 보고르농과대학교, 반둥공과대학교 및 자카르타국민대학교에 각각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인도네시아대학교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연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위: 자카르타국민대학교 장학생과 함께 / 맨 오른쪽 Rura 한국어과 교수

아래: 인도네시아대학교 장학생과 함께 / 좌로부터 Christin 한국어과 과장, Kamarudin 학생처장, 장학생, 정무웅 이사장, 장학생, Alnerto 학생과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8일 인도네시아 찰레곤시에서 열린 일관제철소 부지조성 공사 착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영 포스코 부사장, 마르주키 알리 국회의장, 이부 라투 아툿 코시아 반텐 주지사, 김호영 주 인니 대사, 정준양 회장, 가마완 파우지 내무부장관, 무스타파 아부 바카르 국영기업부 장관, 파즈와르 부장 크라카타우스틸 사장, 최종태 포스코 사장.

포스코, 일관제철소 부지공사 착공

- 28일 국영철강사 크라카타우스틸과의 합작 120만평 부지조성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한국 철강회사가 외국에 일관제철소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동남아 지역에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것도 포스코가 최초다.

포스코는 지난 10월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찰레곤 시 크라카타우스틸 옆에 일관제철소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 정준양 회장과 크라카타우스틸의 파즈와르 부장(Fazwar Bujang) 사장 등 양국 정.관계 인사 등 35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준양 회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이번 착공식이 양사의 합작사업을 통해 동남아 최초의 일관제철소로 한걸음 더 도약하고 새로운 성공스토리 창출을 위한 첫 단추로서, 양사의 발전과 성장은 물론 양국간 정부의 우호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는 브라운 필드(Brown Field)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지 합작사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용수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투자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합작사의 건설과 조업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조기 정상조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기업이 인프라와 생산설비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지난 9월 27일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인 크라카타우스틸(Krakatau Steel)과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했고, 회사명을 ‘PT. KRAKATAU POSCO’로 정했다.

총 부지면적은 400ha(약 120만평)로 내년 하반기까지

부지조성이 마무리되는데로 300만톤 규모의 설비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2013년 말 1단계 공사가 준공되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최종 600만톤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철광석 22억톤과 석탄 934억톤 이상의 잠재 매장량을 보유해 원료수급이 원활하고, 자국은 물론 인근 인도 및 동남아 지역의 철강 수요산업도 급속히 커지고 있어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포스코는 이번 일관제철소 합작사업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내 철강원료도 공동개발할 계획이어서 향후 양사의 원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준양 회장과 유도요노(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 향후 협력사업을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어, 포스코 패밀리 차원에서도 철강, 에너지, 정보통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에 동반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회장은 행사기간 중 인도네시아 부디오노(Boediono) 부통령과 재무부 장관을 예방하고 합작투자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부통령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제지원, 특별경제구역 지정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창구를 일원화하는 전용창구(Single Window)를 개설하는 등 일관제철소 합작사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도 제철소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현지 업체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병원, 장학사업 및 현지 노동인력 고용 확보 등을 위한 직업훈련소, 한국어 강좌 등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조기에 현지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하나은행, 교민초청 경영전략 세미나 개최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은행장 최창식)은 지난 10월 7일 은행고객 및 교민들을 초청해 'CEO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 까지 개최된 세미나는 약 100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해 거시금융전망과 산업전망이라는 두가지 큰 주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은행은 거시금융전망 세션에서 글로벌 경제 트렌드와

주요 이슈, 2011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아시아의 부상과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2011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등 포괄적인 설명으로 교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산업트렌드와 2011년 주요 산업전망,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업체의 주요 산업동향 및 해외진출 기업들의 경영사례 및 참고내용에 관한 내용으로 교민 CEO들이 경영하는데 유익한 내용을 전달했다.

KOICA

KOICA, 연료전지 발전소 시범사업 협의의사록 서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0월 7일,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자카르타 자산공사 Mr. Pramonohadi Sayogyo 이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료전지발전소건설 시범사업(300만불/2010-2012)”을 추진키로 하고, KOICA 최성호 사무소장과 에너지광물자원부 Mr. Johnni R.H. Simanjuntak 전력기술환경부 국장간에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이 체결되었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2008-2012/2억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후변화 ODA사업중의 하나로서 KOICA는 2009.11월 사업대상지인 Ancol지역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자카르타 안졸지역으로 확정하고, 부족한 전력공급 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설비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식수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자 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원 중 우리나라 기술 확보율이 높은 연료전지 발전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관계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동 시범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부족한

에너지공급에 기여하고 우리기업에게는 향후 본 사업을 통해 동남아 지역으로 연료전지 발전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주재국은 연료전지 발전의 연료가 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됨에 따라 발전원가가 우리나라 절반수준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연료전지 기술은 무소음, 친환경, 무공해 발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 저감과 동시에,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공급이 가능해 향후 전망있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번 사업은 연료전지 신기술을 실증하여 주재국 정부의 기술도입 및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의 시범사업이지만 향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주재국 관련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pelling Bee 대회

지난 10월 12일(화)과 13일(수) 2틀에 걸쳐 JIKS Spelling Bee 대회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각반의 11명의 어린이들이 한 팀이 되어 각 학년별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단체전과 개인전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반을 가려내었습니다. 3-3반, 4-2반, 5-1반, 6-3반이 올해 우승반이 되었습니다.

한글날 글짓기 대회

지난 10월 8일 JIKS 초등 1-6학년 각 교실에서 한글날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각 학년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글짓기를 하였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우리말 우리글의 소중함을 느끼고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0학년도 체육대회

체육학습 및 체육활동의 목표를 달성하며 공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정신을 함양하고 항상 체육을 즐기는 습관을 길러 체육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2010년 10월 9일 토요일 JIKS강당과 운동장에서 초등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비 때문에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강당에서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져 1-6학년 어린이들이 여러 다양한 경기를 하였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Mission Impossible, 고학년 남자 어린이들의 낫다리 밟기, 간이볼링, 장애물 달리기, 카드뒤집기, 저학년 어린이들의 박 터트리기인 풍년이 왔네 등의 경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백 계주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뜨거운 응원속에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JIKS 모든 어린이들이 운동장 트랙을 둘러싸고 자신의 꿈을 적은 풍선을 날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파란 하늘에 올라가는 멋진 모습을 보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한번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니문화연구회, 문화탐방·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재인니문화연구회(회장 사공경)가 교민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인 ‘눈부신 푸르름으로 서로 통하네’의 시상식과 당선자들로부터 직접 낭송을 듣는 시간을 지난 10월 27일 자카르타 프랑 지역의 한 식당에서 가졌다.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교민을 대상으로 인니문화탐방기 및 생활수기를 글을 모집한 금번 공모전은 인도네시아

문화를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감성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더욱 윤택한 교민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낭송회에는 김호영 대사 및 한인회 관계자, 문화를 사랑하는 150여명의 교민들이 자리해 문화에 대한 교민사회의 열정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공모전 당선자들로부터 직접 듣는 낭송회는 인니 전통악기인 앙끌롱 소리를 배경으로 잔잔히 퍼져 나갔고 청중들과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금번 공모전의 대상은 얼마 전 또바 호수 여행을 동행한 아내의 장인어른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삶의 애환을 잔잔히 그려낸 이재민 씨의 작품 ‘바다를 닮은 호수-다나우 또바’가 선정되었다.

이재민 씨는 너무도 큰 상이라 부끄럽다며 “오늘 일흔여덟번째 생신을 맞게 된 장인어른께 큰 기쁨이 되길



공모전 수상자들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공경 회장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며 “자카르타에 내리는 폭우가 수많은 꽃송이로 피어나듯 교민들의 마음에도 사랑과 문화의 꽃송이가 활짝 피었으면 한다”며 당선자뿐만 아니라 자리해준 교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문화를 사랑하는 대사로서 알려져 있는 김호영 대사로 “문화란 창조적인 능력이 잠재된 우리의 미래이며 과거이기도 하다”며 “바쁜 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의미와 아름다움을 캐어내고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사회가 아름답다”며 1회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점에 큰 박수를 보냈다.

한편 낭송회와 시상식에 이어 교민들과 함께 앙끌롱을 배우고 연주하는 시간을 갖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만찬을 곁들이며 문화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하루가 저물어 갔다.

바다를 닮은 호수

다나우 또바 Danau Toba



글: 이재민

얼마 전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울상으로 내게 다가왔다. 아내의 근심어린 모습에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인가 덜컥 걱정부터 앞섰다. 장인어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연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예사 병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얼마 전부터 식사도 거르시고, 가슴이 아파온다고 하시더니 검진 결과 담도암에 걸리셨다는 것이다. 치료의 시기는 지났으니 남은 생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그 때 문득 외삼촌께서 상을 당하셨을 때 대설이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하나가 가면 또 하나가 가는 일은 쉬운 법인데...” 하며 말끝을 흐리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려왔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어깨를 들썩이는 아내를 어루만지며 “다 잘 될 거야...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만을 되풀이 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내와 인도네시아에 온 지 8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내는 두 아이를 낳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남편을 위해 묵묵히 참고 견디어 주었다. 장인어른의 남은 생을 곁에서 지켜보며 행복한 기억을 남기고 싶다는 아내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8년 간 변변한 여행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창고 속에 소복이 쌓여가는 먼지가 되어갔던 아내를 위해 다나우 또바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내가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를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다. 그때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또바에 대한 글을 적어왔다. 그 후로 아내는 늘 입버릇처럼 또바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메단까지 2시간 남짓 걸렸다. 차량을 하나 렌트하여 빠라뻏까지 또 4시간 넘게 달렸다. 빠라뻏까지 오는 동안 자카르타와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의 푸른 풍경에 맘껏 취해보기도 했다. 특히 메단 최대의 이슬람

사원이라는 건물을 지나며 학창 시절 즐겨듣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속으로 음미해 보기도 했다. 빠라뻏에 도착하여 배를 기다리는 동안 출출한 배를 채울 겸 좌판을 차린 인심 좋아 보이는 할머니에게서 방울토마토 몇 개를 샀다. 또바의 영혼을 닮아서인지 방울토마토 하나하나가 매우 투명하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 초록나무와 빨간토마토... 수십 가지 색이 들어있는 딸아이의 물감통을 열고 이러한 색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 못 찾을 것 같다. 자연의 원색이란 아마도 이런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맛 또한 매우 재미있다. 입 안에 넣고 꼭 깨물면 그 안에 담겼던 물이 주르르 목안으로 흘러내린다. 아내와 나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입 주위가 붉어지는 것도 모른 채 모처럼 함박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

빠라뻏에서 배를 타고 또바 호수 안에 있는 사모시르섬으로 향한다. 또바 호수는 여의도 500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그 안에 있는 사모시르섬은 싱가포르 크기이다. 호수는 바다를 닮았다. 호숫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안에 넣어보지 않는 한 그곳이 호수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행객이 배 위에서 그럴듯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배는 여행객이 가리킨 곳에 닿는다. 그 느낌이 마치 대항해 시대에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한 기쁨과 같다. 우리는 다정한 자매들처럼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늘어서 있는 뚝뚝 지역의 코티지에 배를 댔다. 오랜 시간 힘들게 도착했으니 삶의 아픔일랑 이곳에서 만큼은 다 털어버리라고 바람이 말한다.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 곳을 속소로 정했다. 무엇보다 햇살과 바람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이 마음에 들었다. 내부 시설은 그냥 그렇다. 생일날 화려한 선물 포장지를 뜯고 보니 내용물이 너무 형편없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과 같다. 밤이 들면서 일기가

요동을 친다. 밤하늘 위로 붉은 빛이 이곳저곳에서 번쩍이고, 그 소리 또한 요란하다. 빗방울 듣는 소리가 시끄러운 때미 때 소리처럼 끊일 줄 모른다. 흑쓰나미라도 밀려오는가 싶어 살아남 방법들에 대해서 궁리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눈과 마음이 렌즈 열린 카메라처럼 어서 빨리 소중한 풍경들을 담아오라고 재촉한다. 밖은 안개에 뒤덮여 지척도 구분하기 어렵다. 행여 이 작은 섬에서 서로를 잃을까 아내와 나는 두 손을 꼭 잡는데 연애시절처럼 가슴이 두근거린다.

주변을 돌아다니니 그래도 사람들이 꽤 있다. 이상한 건 여행객 대부분이 서양 사람들이다. 혼자 온 사람도 보이고, 연인과 함께 온 사람도 보이고, 가족과 함께 온 사람도 보인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곳까지 기 쓰고 찾아나서는 서양인들이야말로 진짜 여행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곳 먼저 찾고, 즐기는 그들이 학창시절 늘 나보다 공부를 잘 했던 친구처럼 알밋다. 화목해 보이는 한 가족을 향해 아내가 영어로 인사를 건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한다. 가족끼리 무어라고 지껄이는 소리가 흡사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 같다. 우리는 그냥 눈인사만 주고받은 뒤 헤어졌는데 그때 내 맘에 치졸한 생각이 싹 텴다. “영어도 못하는 것들... 풋-”

안개가 걷히자 아내와 나는 자전거를 한 대 빌렸다.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길을 향해 달리면 지구 끝에 닿을 것만 같다. 영화 아바타에서 남녀 주인공이 큰 새를 타고 하늘을 휘젓고 날아다니는 모습에서 새가 자전거로 변했을 뿐이다. 녹음 우거진 그늘에 들어갔다가 햇빛 벌판을 달렸다가를 반복하면서 굵은 팔죽땀이 송이송이 배어 나온다. 아내가 내 땀을 닦아주며 혼잣말 비슷하게 중얼거린다. “우리 아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자전거로 나를 태워가고 태워왔는데...” 행복 가운데 또 슬픔이 밀려오는가보다. 숨이 턱에 찼 썸 언덕 위에 다다랐고 길은 내리막 경사다. 맑은 공기... 서늘한 바람... 허리를 꼭 감고 연신 “달려. 오빠!”를 반복하는 아내. 문득 슬픔에 빠져있던 아내가 잠시 동안 행복 가까운 곳에서 숨을 쉬고 있음을 느낀다.

고개 중간에 바닷식 가옥이 있다. 바닷인들은 물과 살아야 했기에 배를 닮은 집을 생각한 것일까. 아무튼 그 모습이 매우

이국적이다. 또바에서는 자카르타에서 흔히 듣던 아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곳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일반집들 내부에서 기독교식 성화나 목조 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약 150년 전 식인 풍습이 있던 이곳에 독일인 선교사 노벤 손이 복음을 전파했고, 그 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성지처럼 인식되는 곳이기도 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앞길을 제시하는 빛이 되기도 하는 곳이다. 그동안 이곳에 뿌려졌을 피와 영혼을 생각하니 새삼 마음이 찢해진다. 순수 바닷인들은 매우 잘생긴 얼굴이다. 보통 인도네시아인들과는 다르게 콧대도 우뚝하고, 피부색도 옅다. 으레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 그렇듯 작은 일에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한다. 그런 모습이 이방인의 눈에는 간혹 다혈질의 모습으로 비쳐 보이기도 한다. 순박하지만 생활력도 대단하고, 이지적인 총명함이 도드라져 보인다.

펼쳐진 모래 위를 거닐다보니 평온한 풍광이 눈앞에 펼쳐진다. 고기잡이 배, 그물 고치는 어부, 생선을 말리는 아낙, 나뭇가지를 그네 삼아 노는 아이들... 그 사이에 아내를 세워 두고 사진을 찍으니 그대로 그림이 된다. 가까운 곳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굵은 물고기 하나를 들어올린다. 펄떡 펄떡 요동치는 지느러미에 생명이 꿈틀거린다.

점심때가 지나서 스콜이 한바탕 지나갔다. 스콜 지난 뒤의 또바 하늘을 두 손으로 움켜쥐면 푸른 잉크물이 그대로 푹푹 떨어져 내릴 것만 같다. 창에 앉아 호수와 하늘을 번갈아 보니 하늘과 호수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눈부신 햇살은 미처 자취를 감추지 못한 지상의 빗방울들에게 산뜻한 처신을 당부하는 것만 같고, 그에 응답하듯 물방울들은 뱃전에서 나무에서 유리창에서 빨래에서 잔걸음으로 사라져간다.

사모시르 섬은 마도로스를 맞이하는 이국의 색처럼 수줍어 보인다. 호수는 여전히 아득하고 끝을 알 수 없다. 호수 위 구름을 닮은 사람들의 미소도 넉넉하여 내 안에 고단함이 물보라 되어 사라진다.

또바 - 10만 년 전 화산이 붉은 울음을 울어 눈물로 채워진 영원의 호수이다. 불혹의 나이를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내게

시간도 이곳에선 멈춘다고 호수가 속삭인다. 타인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지칠 줄 모르고 피어났던 욕망의 덩어리들. 이제껏 인생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는 허무한 생각의 버짐들이 눈 녹듯 사라진다. 노을 곁게 물드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아내의 목소리에도 이제 슬픔보다 차분함이 깃들어 있다.

또바 호수에서-

간밤 가슴 찢으며 울던 네 낮이 오늘은 어찌 이리도 잔잔하냐. 바다 향한 네 꿈은 고여 고독이 되고, 고요가 되었던 말이나. 오늘은 여분 생의 첫 날이라... 뭐 그리 거창한 고백 물새 소리로 말하느냐. 네 가슴에 눈길 준 벗님들. 한 날은 바람에 튀는 빗방울 되고, 한 날은 푸른 물내음 되어 살았을 테고 살 테고 살겠지. 내도 네 흐느끼는 어깨를 마주하면 머리카락 흩날리는 산 그리메 품은 바다를 닮을 텐가. 벗님들 생살 찢기는 소리. 내살 찢기는 소리 주고받고 울 것 다 울면 종당엔 잔잔한 네 얼굴 닮을 텐가.

또바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로마에 온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다.” 라고 했던가. 또바의 한국식 어감처럼 “또 볼 수밖에 없는 곳인가” 하는 제 몇 대로의 해석을 해 본다. 아내는 이제 한국생활을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 신경 쓸 일이 많아 그런지 집안일은 조금 뒷전인가 보다. 곳곳에 먼지가 쌓여가도 거기까지 손길이 닿지 않는가 보다. 집안에 쌓인 먼지는 대부분 사람의 몸에서 나온 각질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우리 집에는 꽤 많은 먼지가 곳곳에 쌓인 것으로 보아 사람의 냄새가 나는 집이라고 하겠다. 불혹의 나이에 선 나는 이제 더 많은 세상의 일들과 부닥칠지도 모른다. 꽃 같은 삶을 보내시고 꽃잎으로 자취를 감추실 장인어른을 위해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당신의 가시는 앞날에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아내는 억척스럽게 장인어른을 보살필 것이다. 바다를 닮은 호수 - 또바. 그곳의 영혼과 영원을 가슴으로 담은 아내는 “아빠,

인도네시아에는 믿을 수 없이 큰 호수가 있어요. 바다만큼 커다란... 밥 잘 먹고 기력 찾으면 나와 함께 그곳에 꼭 가요.” 라고 말하며 장인어른이 삶의 한 자락 끈이라도 잡도록 애쓸 것이다.

수상소감

이 좋은 상을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기 몇 시간 전 평소제가 형처럼 따랐던 지인의 급작스런 부고를 접했습니다.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장인어르신 얼굴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가야만 했던 밤이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고인에게 미안한 일이 많았나 봅니다.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끝까지 곁에 있어 주지 못했기 때문인지, 미안해요...미안해요... 라는 말만을 정신없이 되풀이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더니 뜻밖에도 장인어르신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평온한 모습으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 장인어르신 마음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후쯤 처가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온천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어르신 등 한 번 밀어드리지 못한 일이 송구스럽고, 죄스러웠나 봅니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 옷을 하나하나 벗는 도중 복수 때문에 불룩하게 나온 장인어르신 배를 보니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탕에 들어가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장인어르신께서 돌연 저에게 누구시냐고 물어보실 때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 현실과 꿈은 재료가 참 비슷하다고 술잔을 나누었던 지인의 목소리처럼 인생은 아주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팔당썰인가 경치 좋은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바깥 경치를 보는데...역새와 코스모스가 참 어색하게 모여 가을 햇살 아래 춤을 추고 있더군요. 흐르는 강물은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꾸역꾸역 흘러가고...뒤에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 3 살배기 딸과 또 그 뒤를 휘청휘청 따라오는 한 돌 지난 아들 녀석의 모습에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나이인가 봅니다.

역새와 코스모스가 뒤섞여 있듯 세상은 아파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장인어르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장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마 이 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에 가장 숨김없이 기뻐해준 분이 장인어르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북봉 北鳳

글 : 김현준

I. 수도 서울에서

가을의 초입인 9월 첫 주, 하루하루 서늘해져 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난 생활하고 있다. 출퇴근 시 애용하는 서울메트로 속, 귀에 꽂은 내 아이팟은 반가운 목소리들을 토해낸다. “Assalamualaikum, Apa kabar~.....” 떠나온 나에게 UI 대학원 학우들이 녹음해 보내준 MP3파일은 그들의 반가운 첫 목소리와 그 동안의 즐거웠던 추억들로 수다스럽다.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는, 그리고 다시 만나길 바란다는 애정 어린 주문이 몸을 휘감는다. 2년 전, 하나은행 학술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경제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2010년 8월, 우등 졸업했다. 이제는 서울로 그리고 은행원 생활로 다시 복귀해, 인도네시아를 조금 경험한 서울시민으로 돌아와 있다.

처음, 공모문 작성에 대한, 자카르타 지인들의 권유를 받았을 때, 선뜻 승낙 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생활을 시작하려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지난 2년간의 내 생활을 돌이켜 볼 기회도 될 수 있을 듯싶어, 짐사랍과 두 아들이 잠든 새벽, 기억을 더듬어보며 작성해 본다. 난 태생이 서울 토박이인지라, 인도네시아 생활 자체가 기행(紀行)으로, 모든 것이 낯설었던 그 동안의 자카르타 생활과 그 속에서 만난 지성인(知性人)들 그리고 족자탐방 등을 중심으로 적어 보고자 한다.

II. UI 대학원 생활

2008년 8월 13일 저녁, 첫발을 내디딘 스카르노하타공항은, 자옥한 ㄱ레텍 담배향과 덥고 습한 공기가 확 코 속으로 밀고 들어와, ‘잘못 왔구나’하는 생각부터 들게 했다. 이어 도착한 숙소는 샤워시설도 없고, 변기 옆 양동이에 물을 받아 몸을 씻어야 하는, 60년대 우리 지난날의 그것이었다. 잠자리만한

모기들을 피해, 한국에서 가져온 모기향을 방패로, 밤을 거의 지새웠던 첫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하지만, 다음날 만난 학교 관계자들은 나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교직원들은 날 친절히 맞아주며, 향후 2년간의 내 일정을 위시한 오리엔테이션과 캠퍼스 투어를 해 주었다. 특히, 현대그룹 ‘故 정주영’ 회장님을 존경한다는 ‘Rhenald Kasali’ 학장과 교수진들의, 한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식견은 이후에도 그들과의 친분과 대화의 공통분모가 되었다. 상아탑에 대한 평가는 훌륭한 시설과 기자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인력의 우수성과 그들의 식견(識見)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했다.

대학원이 UI 의대 캠퍼스 후미에 있어, 늘 죽거나 부상당해 급히 실려 오는 응급환자들로 붐볐다. 특히, 매 학기 초, 살렘바 소재 대학 간 학생들의 집단 패싸움이 잦아 응급실로 실려 오는 피투성이 학생들을 종종 봤던 기억 등이 떠오른다. 늘 웃음으로 대하는 자바인들의 이면에, 옥하게 폭발하는 남방기질이 있음을 느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응축된 에너지와 바떡을 엮어가는 섬세함을 결합시켜본다면, 큰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수업이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 배정되어 있어, 낮 수업이 드물었던 점이 특이했다. 열대기후에 따른 배려로 생각한다. 수업이 없는 시간, 인근 찌끼니 역으로 거리탐방을 해보곤 했다. 특히, 잘란 수라바야에는 골동품 벵룩시장이 상설되어 있고, (예전 화란인들 집에서 사용되던) 진짜 엔틱들도 가끔씩 매물로 나오곤 해, 가격을 흥정해보며 자카르타 거리 상인들의 성향 등을 느껴보곤 했다.

대학원 커리큘럼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가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어, 특별히 언급할 바는 없으나, 인도네시아 TV에서 보던 정부인사 및 자문역들과 수업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토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경제정책 수립 시, 늘 역할을 하시는 M. Chatib Basri 교수(인도네시아경제학 수장), 전 재무부 장관 Sri Mulyani Indrawati (동문이며 특강단골), 졸업논문(Contracts and Risks Associated with Islamic Banking) 지도교수이셨던 이슬람 수리경제학자 Muhammad Muslich 교수 등 현지석학들과 친교^{親交}할 수 있었던 기회는 자카르타 생활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III. 인도네시아 탐방

여가시간을 활용해, 자카르타 유적지 탐방도 많이 했었다. 화란 식민시절, 자원 송출창구로 활용되던 순다글라빠항은 지금도 물류의 한 축을 수행하고 있어 늘 배들로 붐빈다. 정박해 있는 범선에 승선해 선두에 올라 적도 바다를 내려다보면, 맘이 탁 트이는 상쾌함을 느껴볼 수 있었다.(배 주위에는 작은 보트들도 많아, 본인이 원하면 노잡이를 동선시켜, 근해까지 나가볼 수도 있었다.)

항구 인근에 수상 가옥촌이 산재해 있어, 생활하수를 꾸준히 방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바다는 깨끗한 물도, 더러운 오수도 모두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 정화해내는 바다의 포용력을 느껴보며,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바다라 불릴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본다. 인도네시아는 300개가 넘는 종족과 100개 이상의 언어를 가진 큰 나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 종족이 순혈주의만을 내세운다면, 인도네시아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 바다와 같은 포용력과 지도력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유지와 향후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2009년 여름, 문화연구회 회원들이 의기투합해 떠나는, 1박2일 족자탐방에 우연히 동행했던 적이 있다. 나이도 스무 살 가까이 어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나의 동행을 선뜻 반겨준, 마음이 넓고, 젊은 사교를 지니신 분들이다. 특히, 사공경 선생님은 한인회를 통해, 다양한 역사, 문화 프로그램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교민과

현지인 간의 인식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헌신하시는, 깨끗한 내면세계를 지니신 지성인이다.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프람바난 힌두사원, 족자왕궁 등 주요 유적지들을 바빠 돌아보았지만, 이들을 건립한 족자인들의 신심과 경건함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인간의 감정은 찰나에 오고 가나, 감동은 영원하다고 생각한다. 새벽안개에 싸인 보로부두르 사원을 보고 있자니, 그 장엄한 광경에 숙연해지고 자숙자성^{自肅自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보는 이의 내면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잡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몰입의 정점을 지나볼 수 있다. 인간의 신심이란 때론 의외의 피조물^{被造物}들을 만들어 내나, 그것에 의해 후대 사람들은 영원한 무언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 그래서 다양성과 개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IV. 여시아문 如是我聞

많은 분들이 불교사원 보로부두르를 다녀오셨기에, 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해 보고자 한다. 불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개 불교경전은 ‘如是我聞’(이와같이 나는 들었다)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불교경전의 경우,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받아 들였는가’에 보다 무게중심을 둔다. 주체성을 강조하며,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개개인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인도네시아인들과 생활해 보니, 이들과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선, 편견에 구속되지 않고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의 시각이 필요함을 느끼곤 했다. 인도네시아는 문화의 용광로와도 같이 거대한 다양성을 갖춘 나라로, 현재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형식에 더 가까우나, 견실한 경제성장 및 산업정보화로 빠르게 탈바꿈해 나가고 있는 신천지이기 때문이다.

‘自由’는 ‘스스로(自) 말미암다(由)’는 의미이나,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외부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다. 주위에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고, 세간의 평가가 다시 나빠지면 나도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기 쉬운 습성을 우리 인간들은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위로 말미암아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 셈으로, 각자의 ‘自由’는 소멸하고, ‘他由’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뿐이다)

빠르게 성장해가는 인도네시아와 현지인들을 대하며, 고리타분한 여행서 몇 권을 훑어보고 이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과오를 범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믿는다. 지속 가능한 발전적 의사소통을 위해선,

첫째, 현지인들을 편견 없고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열린 사고’가 필요한 것 같다. 커진 인도네시아의 몸집에 걸맞은 성숙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선, 과거로부터의 편견에서 우리 스스로부터가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상대성의 소양’을 갖추길 당부 드린다. 특히, 일일 생활권이 되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충격이 빈번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한국에서는 머털 쓰다듬을 수 있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금기사항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내가 가진 상식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그래서 한국민의 상식이 현지에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한쪽 문을 항상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내 카톨릭 세례명은 ‘에덤페르모’이다. 대학원 시절에는 이를 줄여서, ‘에덤’ (영미식) 혹은 ‘아담’ (인니식)으로 불렸다. 하지만, 내 이름을 들으며, 인도네시아인들은 독립전야 친일 ‘스카르노’를 붙잡아 놓고 욕박지르는 당찬 청년, ‘아담말릭’ (후일 부통령)을, 카톨릭 신자들은 순교한 거룩한 성인을, 일반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의 상대인물 정도로 인식할 것이다. 이름을 들으며, 모두 미소 지을 수 있겠지만, 그 흐뭇함의 의미와 의도는 모두 다를 수 있다. 만일, 동일한 이름을 가진 현지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맞닥뜨린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일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상이몽의 해프닝은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산재散在해 있다.

V. 현지화^{現地化}

이제는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활발히 진출해, 현지민들도 겨냥하다 보니, ‘현지화’가 국내외의 큰 화두거리로 등장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파견된 현지인력 중, 이슬람 전통에 따라, 현지식 수업을 기르고, 이슬람 사원에 다니며 현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언론보도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퍼포먼스는 현지인들의 ‘경계어린 호기심’ 혹은 인도네시아 식자층^{識者層}의 ‘안쓰러운 시선’을 받기에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UI 석학들 및 엘리트 학우들과 생활해 본) 나의 현재결론이다. ‘현지화’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요구하며, 보여지는 ‘단편적 행동’이 아닌, 충분한 소통에 근거한,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과 그 ‘실천’에 바탕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원 입학 초, 현지어에 서툴었던 나는, 클래스메이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그 중, 학우대상 한자교습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이는 천자문의 쉬운 문자부터 가르쳐 주는 것으로, 생각보다 성과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학우들 중 한자에 관심을 보인 학생들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화교학생들은 의외로 한자를 모른다. ‘男’은 입(口) 열개(十)를 힘(力)으로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남자라는 의미를, ‘愁’는 서리 내리고 날로 싸늘해져 가는 가을(秋)에 농부들이 느끼는 불안한 마음(心) 등임을 알려주며 졸업 무렵이 되니, 천자문 대부분을 가르친 것 같다. 소통의 첫째 원칙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느껴본다. 한자를 조금 알려주다 보니, 학우들이 내게 ‘北鳳’이라는 애칭도 붙여 주었다. 왜소한 인도네시아인들에 비해, 신장 190센티의 내가 ‘북쪽에서 날아온 커다란 새’ 정도로 보여진 것 같다.

지금 나는, 극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수도서울로 다시 날아와, 서울메트로를 이용해 바빠 살고 있다. 하지만, 가끔씩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먼 남쪽나라 인도네시아와 그곳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초록빛 숲을 내쉬어 본다. Walaikumsalam... (주님의 평화가 그대들과도 함께하길...)

수상소감

지난 2년간의 인도네시아 연수생활을 기록한 제 글이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수상을 통해 제 경험을 더 넓게 공유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지인 분들께 간접적으로나마 보은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한층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전혀 다른 문화권인 타국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회의 주류층과 교류할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던 점은 자카르타 생활의 개인적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끝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이해를 도와주신 인도네시아한인회 관계자들에게 본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가루다항공 탑승객에 대한 기내출입국심사(IMMIGRATION ON-BOARD)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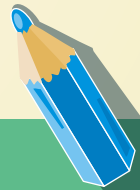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0. 09. 01부로 서울-자카르타 행
가루다항공 탑승객에 대하여 기내에서 도착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를 완료하는 기내출입국심사(IMMIGRATION ON-
BOARD)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 내출입국심사제도(IMMIGRATION ON-BOARD)는 인도네시아 이민청 직원 2명이 서울발 자카르타행
가루다항공에 탑승하여 기내에서 우리 국민 등 승객에게 도착비자를 발급하고 입국심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증명하는 입국심사완료카드(IMMIGRATION CLEARANCE CARD)를 교부하며, 동 절차를 마친 승객은
도착지인 수카르노하따공항에 별도로 마련된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완료카드(IMMIGRATION CLEARANCE
CARD)를 이민청 직원에게 반납함으로써 입국절차가 완료됨

동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Garuda항공 체크인카운터 옆에 마련된 도착비자수수료 납부 창구에서
도착비자수수료(25불)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기내에서 이민청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함

동 제도 시행으로 수카르노하따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를 받기 위한 만성적인 대기시간(최대
2시간 정도)을 없애 당지 입국에 따른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당지 이민청은 동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면서 인천공항-발리 행 Garuda항공 탑승객에 대하여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Sel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투자권설당,M&A,부동산,저당
권,자원개발,채권회수,파산관재,가사,상
속,지적재산권,소송,중재,재단법인,출입
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파산관재사
(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Tel. 021) 529-60643

y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니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1)520-1915

핸드폰 : 0811-183-3164

E-mail : jkt_kimhoil@msn.com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인도네시아어 강좌

강의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월화차회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 720-4211, 0818-491-325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한국어 강좌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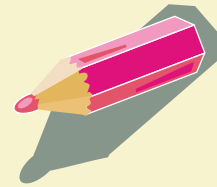
부인회 취미 활동반 안내

- 꽃꽂이반 개강 -

요일 : 화요일
 시간 : 09 : 00 ~ 11 : 00
 장소 : Taman Gandaria C-23
 연락처 : 021)739 6444,
 hp : 0811-834-026
 (사) 한국 꽃예술작가협회 루시 플라워회
 회장 최정순

최근 테러위험 고조 관련 신변안전 유의

1.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마 이슬라미아 (JI) 지도자와 조직원들이 테러기도 혐의로 대거 체포된 이후 테러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당국은 JI 과격세력들의 보복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시설 및 다중장소 등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교민 여러분 및 여행객께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시설 또는 다중장소(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등) 출입 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대폭 개선

대한항공이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는 ▲ 세계 항공 업계 최장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 ▲ 마일리지 사용 항공기 좌석 수 확대 ▲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

1. 마일리지 유효 기간 10년으로 확대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8년 6월 30일 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2. 마일리지 사용 좌석 확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최대한 추가 배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더욱 쉽게 할 예정이다.

3.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항공, 호텔, 렌터카, 패키지투어상품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서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가족끼리 부족한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까지는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였지만,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늘어나게 되어 소액의 마일리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고가 악기 운반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로 좌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2010.10.31일 부터 변경되는 대한항공 서울행 항공편 스케줄 안내입니다. Garuda Indonesia 와의 공동 운항편도 대한항공의 예약/발권 서비스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28	매일	31-Oct-10	26-Mar-11	자카르타	21:55	서울	06:45*1
KE627	매일	31-Oct-10	26-Mar-11	서울	15:25	자카르타	20:30

[겨울 성수기 추가편] 변경될 수 있음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26	월,수,금	22-Nov-10	31-Dec-10	자카르타	23:45	서울	08:45*1
KE625	월,수,금	22-Nov-10	31-Dec-10	서울	17:10	자카르타	22:20

[덴파사르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30	일	31-Oct-10	31-Oct-10	덴파사르	02:20	서울	10:25
	월,일	01-Nov-10	21-Mar-11		03:35		11:30
	화수목금토	02-Nov-10	26-Mar-11		01:25		09:20
KE629	토일	31-Oct-10	26-Mar-11	서울	20:05	덴파사르	02:15*1
	월화수목금	01-Nov-10	25-Mar-11		17:55		00:05*1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결제 및 배달가능)
- ◆ 정품다이아(GIA 감정서 첨부)판매-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출장 상담 및 공급 가능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본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 0816-1390-333
E-mail. 3sppearl@hanmail.net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장 등 100여사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멘발 소포 폭발물 사건 관련 여권 또는 신분증 보관 유의

최근(10.29) 예멘발 미국행 항공화물(폭발물 소포)을 통한 테러 기도사건 발생으로 국제테러의 위험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여권 등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만약 분실하실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테러 등 범죄행위에 도용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임시청사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중전과 동일)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 한인회	5532	5555
반동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769 124
버카시 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빨렘방 한인회		
한국 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참빛 교회	720	0240
한마음 교회	739	5035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가구

조지언 퍼니처	750	6109,766 0364
---------	-----	---------------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현본 현본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고품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플라빠가딩)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지)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지)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플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뿐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 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	7278	0856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ini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The style,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 French,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ling, Exhibition.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구독문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굿 - 머니

MONEY CHANGER

(허가번호 NO.9/49/KEP.GBI/DPM/2007)

100% 환전 송금

- 3시이후 서비스가능
- 토·일요일 서비스가능
- 배달 서비스가능

SUDIRMAN PLAZA
Jl. Jend. Sudirman B1
Tel. : (021) 5793-9990. 6840-1
직통 : 0878-8777-0111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동서 증권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브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침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4586	7844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브찌까라와찌)	546	4531
예 윈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자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두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십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발리한인회 연락처 변경 안내

회장 윤여각 (081-2384-2283)
 수석부회장 김재호 (081-1394-566)
 부회장 조성호 (081-1395-5783)
 최경희 (081-2380-6288)
 수석총무 이태우 (081-2379-39452)

한인회 사무실 및 전화 번호
 ISTANA KUTA GALERIA BLOCK RG 11, LT.3
 JL.PATIH JELANTIK-KUTA-BALI-INDONESIA
 TEL: 0361)769-124 FAX: 0361)769-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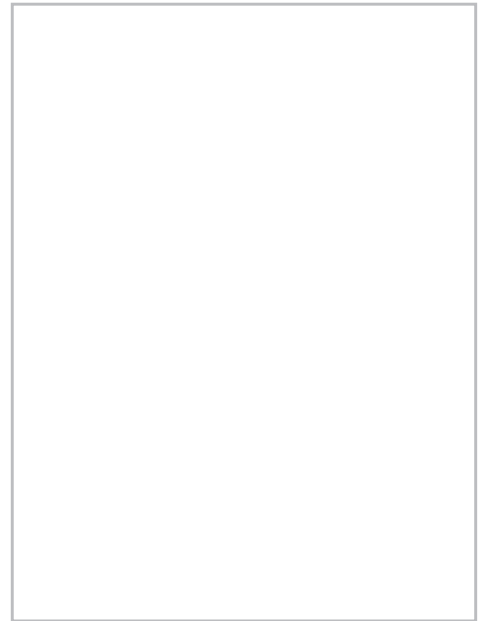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769 124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 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 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AVENUE	761 313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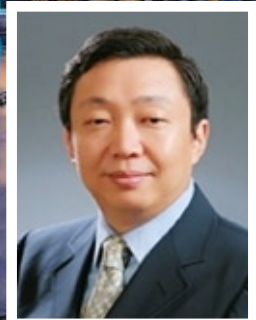
haninnews123@gmail.com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 사우나	201 5007~8



G20 성공적 개최, 재외동포들의 힘 모아야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지구촌 정치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견인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가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결성된 G20 정상회의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경제국들과 영토와 인구 및 성장잠재력이 주목받는 한국, 중국, 호주 및 인도 등의 신흥경제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협의하고 실천적인 전략까지 논의하는 세계경제의 핵심적인 국제기구이다.

전세계 인구가운데 G20 회원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2에 해당하고 외환보유고는 전세계의 8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은 지구촌 총생산의 85%를 차지하는 등 경제규모면에서도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시적 협력기구에서 세계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들어 국제경제의 제도화를 주도하는 국제경제 협력기구로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대전이후 가장 모범적 발전국가로 성장하여 국제경제를 주도하는 G20 정상회의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무엇보다 G7 국가가 아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어 개최의 의미가 매우 깊다.

한국은 G20정상회의를 통해 국가브랜드와 글로벌 리더십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이 G20정상회의의 좌장역할을 맡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모범국가인 의장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함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대외적 국가전략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한·미간의 전략적 동맹, 신아시아의 교구상, 기여외교와 다자협력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국가위상 격상 등의 국가적 아젠다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글로벌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미국 민주당 정부의 출범으로 우려되던 한미관계는 신뢰, 가치 및 평화구축을 추구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되어 전략적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사무국(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한국은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외교를 통한 최대의 경제적 성과 중의 하나는 정부추산 400억 달러 규모의 아랍 에미레이트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



로 선정된 것이다. 이러한 원자력 기술의 안전하면서도 효율적 운용은 한국의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로 이어졌다. 50여 개국의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다. 우리정부의 핵정상회의 유치는 이번 11월에 열릴 G20회의와 더불어 글로벌 리더 국가로 부상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안정적 추진 성과는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도 한 몫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 G20정상회의에는 세계 최고 정상급 인사가 약 40명 정도가 방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수행하게 될 3천 5백명의 수행원들과 3천명의 취재진 그리고 4천명 정도의 경호 인력 등 이에 따른 단기적 경제과급효과도 크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격과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는 등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위용은 전세계 개도국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이 긴밀히 협력하는 경제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외환위기의 극복 등 경제문제에 관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하우도 갖고 있어 이들 개도국들과 선진국들 사이에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훌륭한 가교역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 국제사회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 국가의 모습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경험은 한국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G20서울회의가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권익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사진이야기’

카메라가 있어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

김영민 편집위원

10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오백 년의 역사를 지닌 高港 순다 플라빠항, 사진을 좋아하는 교민들의 작은 모임인 ‘사진이야기’ 회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약간의 음료수와 약간의 대화를 한 후 高港으로 향한다. 그곳이 점잖은 팔자걸음을 걷는 이,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 설 새 없이 항 구석구석을 누비는 이, 좁다라면서 긴 나무다리를 아슬아슬 건너는 이, 모양도 가지각색 행동도 가지각색이지만 港을 탐사하며 자신의 색깔을 담아내려는 그들의 수고와 즐거움은 똑같아 보인다. 두 시간여의 탐사 후 다시 모여 근사한 맛집으로 발길을 옮긴다.

‘사진이야기’는 2009년 4월 인도네시아 교민들을 위한 웹 사이트인 인도웹(www.indoweb.org)상의 소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초대회장인 엄중환(리키)씨의 제안으로 사진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즐기고 공유하기 위한 장으로 열리게 되었다.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사진이야기’는 김희중(니콘오빠)씨가 2대 회장직의 바통을 이어 받은 현재 전체회원수가 70여명을 넘어섰고 정회원은 25명에 이르는 국적화한 모임으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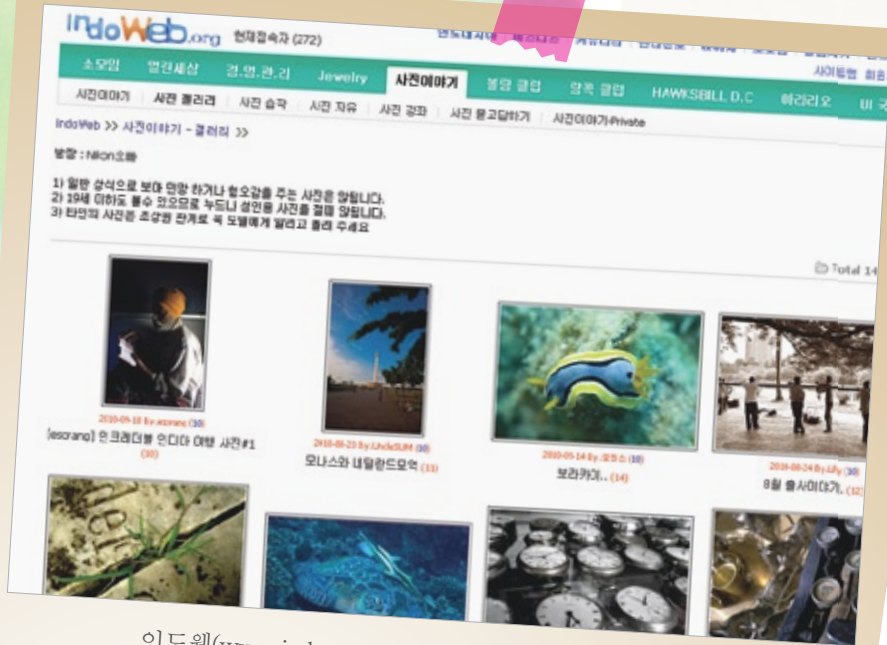
‘사진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개방되어 있다. 사진을 찍고 보는 것을 통해 함께 나눌 마음과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 회원자격의 조건이라면 조건이다. 매달 말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정기

출사에 참석하면 회원 누구든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출사 당일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못다한 우애를 나눈다. 이 순간까지도 사진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회원들 덕에 제법 재미있는 후기사진들을 남기게 된다. ‘사진이야기’는 사진을 매개로 화려한 사진 경력을 가진 회원들의 노련미와 사진을 처음 접하는 회원들의 열정들이 한데 엮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다.

초대 회장이었던 엄중환(리키)씨는 ‘사진이야기’를 통해 나누려 하는 마음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사진이야기는 말 그대로 사진으로 각자의 이야기 혹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임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물을 보아도 회원들마다의 다른 생각, 다른 느낌으로 인해 나온 사진들은 그 회원들만큼이나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접사니 광각이니 조리개 우선이니 전문용어 대동해 언급할지라도 그 속내는 우리가 함께 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 개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사진 한 장의 의미를 넘어서 관계의 이해와 소통까지 확장된 의미를 가진 모임이 곧 ‘사진이야기’입니다.”

바디와 렌즈라는 단순조합으로 만들어진 카메라는 누구를 통해 사용되느냐에 다양한 개성을 표출된다. 혹자는 사진을 자신의 기분, 성격, 마음의 상태를 투영하는 자신의 분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굳이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도웹(www.indoweb.org)에 소모임으로 동지를 튼 '사진이야기'

지난 출사에서 회원들은 다양한 시각과 감성으로
순다플라빠 향을 담아냈다.

카메라를 든 누구든 예술가의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지닌 것으로 평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다양한 회원들의 손을 거치면서 나오는 작품들 속에서 미
쳐 몰랐던 자신과 타인을 발견하곤 한다. 따라서 사진이야
기에서는 마음을 담은 백일사진도 나오고, 프로필 사진도
나오며 가족사진과 모델 사진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렌즈
를 빌어 미쳐 자신도 몰랐던 멋진 모습도 만나게 된다.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 출사는 갑갑한 일상을 잠시나마
일탈하게 해주는 비상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평균
15명 내외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출사 날엔 카메라만을 친
구 삼아 홀로 오는 회원은 드물다. 가족과 함께 가볍게 소풍
나온 기분을 내는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관심 있는 지인을
초대해 오붓한 시간을 갖는 회원들도 있다. 출사날은 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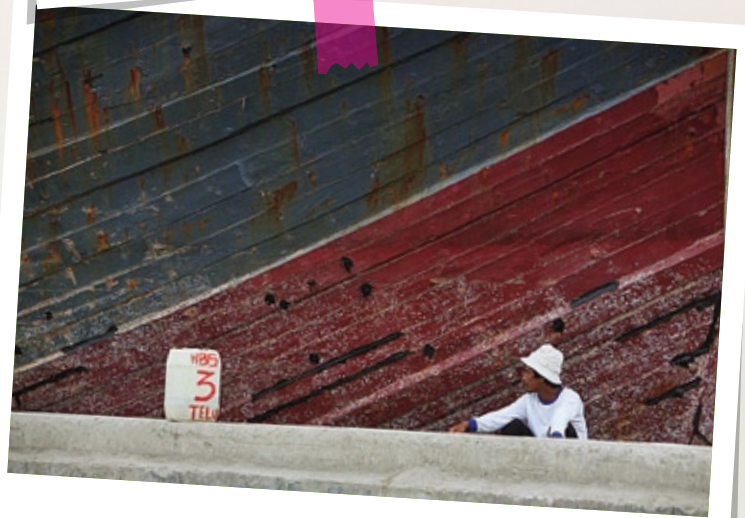
엄중환 작



박상훈 작



박계훈 작



이명희 작

화기에 애하다. 멋진 풍경을 배경 삼아 회원들간 서로 모델이 되어 주는 가 하면, 파파라치가 되어 굴욕(?) 사진을 찍어 협박(?)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족과 함께 나온 회원들은 제대로 된 가족사진을 제법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출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이나 해외 거주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출사 다음날부터 회원들은 각자의 사진을 포스팅하고 사진들에 대한 느낌과 의견들을 나눈다. 열 번의 추천을 받게 되는 사진은 갤러리로 이동하게 된다. 약간의 신경전이 회원들 사이에서 펼쳐진다. 추천을 받아내기 위해 음식공세(?)를 펼치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멋진 말씀씨로 추천을 조장하는 분위기도 종종 연출된다. 하지만 포스팅 사진들을 보며 회원들은 마음을 식히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가끔 사진에 달린 댓글에 킁킁거리며 웃으며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는다.

‘사진이야기’는 1년 반의 짧은 역사에 비해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출사 외에 사진이론 특강, 사진이야기 1주년 기념 일박이일 출사, 섬에서 살아남기 출사, 개별 모델 출사, 번개출사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끈끈한 친교의 장을 마련했는가 하면 지난 해 11월엔 그 간의 사진작품들을 대중들 앞에 처음 선보인 제1회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작품 판매 수입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갖기도 했다. ‘사진이야기’는 예기치 않은 폭발적인 관심에 아마 추어 회원들의 사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담긴 열정과 겸손을 넘겨준 마음으로 보아 주고 전시작품들 대부분을 구매해준 교민들의 진솔





사진이야기
2 두 번째 이야기

제2회 불우이웃돕기 사진전시회

일시: 2010년 12월 7일~13일
장소: 구 대사관 저

된 마음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교민들의 사랑으로 성공리에 첫 전시회를 마칠 수 있었던 ‘사진이야기’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즈음 사진판매 수익금과 불우이웃성금 전액 및 협찬품(아동의류, TV) 모두를 메단 지역의 불우한 아동들을 위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단 수녀원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동행한 여덟 명의 회원들은 산타할아버지로 분장해 수녀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 아동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수녀님들께서 손수 준비해주신 요리를 함께 나누는 등 즐겁고 감동적인 시간을 갖기도 했다. 수녀님들과 아이들의 입가에 흐르는 순수한 미소는 긴 여정으로 피곤해진 몸에 가득 활기를 불어 넣어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고 이 모든 걸 인증샷으로 남길 수 있었다는 것도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만큼이나 즐겁고 보람된 일이었다 여기고 있다.

1년 더 성장한 ‘사진이야기’는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올해 12월 7일부터 일주일간 구 대사관에서 그 두 번째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회 전시회와 같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는 금번 전시회는 조금 조심스러웠던 1회 전시회에 비해 좀더 발전되고 회원들마다의 개성이 흠뻑 묻어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교민들과의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바다의 집시 Gypsi 바자우 Bajau 빨라우족 Suku Palau

김성월 / 수필가·방송 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빨라우족들의 정체는.....?

그들의 조상은 원래 필리핀인들이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바다로 부평초처럼 떠다니다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바다까지 왔다. 떠나려 온 그곳 바다 기슭에 뿌리를 내리고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두고 바자우족(Suku Bajau)이라고 한다.

바자우족들이 버라우(Berau)군과 가까운 섬과 해변에서 살기 시작한 때는 약 1930년대부터다. 육지에 살고 있는 육지바자우족이 있는가하면 조상대대로 바다위에서만 살고 있는 빨라우족(Suku Pala'u)이 있다. 빨라우(Palau)는 인도네시아 단어에서 배라는 뜻을 가진 빠라후(Perahu)에서 가져 온 바자우말이고 배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다.

빨라우족을 만나려면 인도네시아 동부칼리만탄(Kalimantan Timur) 바뚜뿌띠(Batu Putih)로 가면 만날 수 있다. 버라우(Berau)에서 5시간 자동차를 타고가면 바뚜뿌띠에 도착한다. 가는 길이 참으로 험했다. 비포장을 지날 때는 시골에서 소달구지 타는 것 같았고 포장도로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끝나면 청룡열차 타는 것만큼 스틸 있었다. 그러나 굽어진 길은 홀라후프를 돌리 듯 허리를 휘감아 돌았고 생전에 하지도 않던 차멀미까지 나게 만들었다.

빨라우족들은 현재 104명이다. 그들은 서로가 말이 통하지만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문맹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만의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행히 바뚜뿌띠에 사는 육지바자우족의 아스뿔(Aspul)이라는 사람과 뱃사공 둘 뿐이었다.

그런 그들, 숨겨진 채로 살아오던 빨라우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동기는 다름 아닌 국적이 없는 사람들로 경찰들에게 의해 붙잡혔던 사건 때문이다. 경찰들과 말이 통하지 않았고 신분증이 없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가 없었던 그들이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얼쩡거렸다. 경찰들에게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필리핀으로부터 무기와 마약이 가족들 형태로 밀수입되었던 적이 있었기에 경찰들은 그들을 붙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인도네시아 말이 통하지 않고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국적도 없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 영해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네시아 경찰과 정부는 뜨거운 감자 같은 빨라우족을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들은 원래 필리핀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므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었다고 한다.

그때 빨라우족의 임불(Imbul)씨가 말했다. “우리는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보단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Kami lebih baik mati daripada pulangkan ke Filipina” 그리하여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두 나라 영사들이 와서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며 인도네시아에서 생긴 일이니 인도네시아에게 맡깁니다.”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빨라우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 그들을 변호했던 사람이 있었다. 아스뿔씨는 바자우족이며 빨라우족들과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경찰은 아스뿔씨에게 “외국인(국적도 없는)을 보호하면 징역 3년형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내가 바자우족인데 바자우족을 도와서 그렇게 된다면 그 벌을 받아들인다.”며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던 아스뿔이라는 배짱 좋고 기사도 정신이 강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빨라우족들이 버라우군까지 가서 약 25일을 생활하는데 그들과 함께 지냈다고 했다. 빨라우족들은 날마다 바닷물을 한 모금씩 마시고 목욕해야 하는 그들에게 생수는 몸을 가렵고 아프게 하였다. 이를 본 아스뿔씨는 자동차로 왕복 10시간을 다녀오면서 바닷물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육지에 있으면서 겪은 25일이 그들에게는 죽기만큼 고통스러운 날이었다고 했다. 같은 부족을 사랑하는 그 남자 아스뿔씨는 취재하는 일주일동안 함께 지내보니 사고방식이 멋쟁이였다.

그때 일본인 한 사람도 있었다. 그는 배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빨라우족들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였다고 한다. 빨라우족이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일본인은 인권단체로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뉴스는 외국인 언론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바다의 달팽이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 그들을 보고 ‘바다의 집시’라고 했고 그들이 바로 빨라우족(Palau)이다. 그러나 빨라우족을 만나서 바다에서 며칠 동안 함께 지내본 나는 그들을 ‘바다의 달팽이’라고 말하고 싶다.

빨라우족(Suku Palau)은 뱃사람들이다. 조상들은 아기를 출산하면 작은 고깃배 일곱 척을 나란히 두고 태어난 아기, 뱃줄을 끊은 아기를 그 배 밑 바닷물로 잠수를 시킨다고 한다. 잠수한 후 아기가 울면 빨라우족으로서 용감하지 못하다 하여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더니 비바람에 파손된 배를 복구 작업하는 빨라우족

그렇다면 빨라우족은 영원히 코르크마개처럼 바다위로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할까, 떠돌이 신세로 국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걸까. 그 무렵 NGO단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을 변호해 주기도 했다고 마르완(Marwan)씨가 말했다. 자카르타 WALHI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들에게 국적과 주민등록증도 만들어 주기로 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해변으로 보내고 울지 않으면 바다에서 살 운명이라고 데리고 살았다고 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바다를 믿고 신성시했다. 소변을 보더라도 바다로 향해 직접 싸지 않고 작은 통에 본 후 바다에 버린다고 했다.

그들은 바다를 신성시하여 배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사람이



바퀴벌레가 있던 배 안 가족들의 모습

죽으면 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님보라(Manimbara)섬에 묻었고 매년 그곳에서 평안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기도 한다. 장례가 끝나면 모두들 바다로 들어가서 악귀나 재앙을 씻어낸다. 그것이 그들의 풍습이다.

104명의 빨라우족들은 14척의 배를 가졌고 그 배는 다목적용이었다. 집이고 교통수단인 것이다. 작은 배에는 방이 꾸며져 있고 부엌 벽 한 쪽에는 귀한 상어지느러미가 쓰다 말고 걸어 둔 현수건처럼 몇 개 걸려 있었다. 부엌을 살펴봤더니 그릇으로 이가 빠진 접시도 몇 개와 유리컵, 밥 지을 뿔감도 놓여있었다.

낮에는 거실 밤에는 방이 되는 다용도 공간 천정에는 아기가 탈 수 있는 그네까지 만들어 두었다.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도록 천막이 쳐 있어 지붕 역할을 했다. 햇볕이 쨍 하면 지붕에는 잡은 생선들과 조갯살과 널어 말리고 빨래도 말렸다. 잡은 생선이 많고 지붕이 좁은 행복한 일이 발생할 때는 생선들에게 조금을 쳐 주고 절여 놓기도 했다.

작은 어선 위, 앉기만 해도 엉덩이가 부딪힐 그런 좁은 공간에 엄청난 대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생선들이 많아 귀퀴한 냄새들 때문일까 바퀴벌레들이 서식지라고 해도 악플처럼 알미운 말은 아니다. 그들이 방으로 사용하는 마룻바닥에 염치 불구하고 앉았다. 천장이 높지 않아 구부리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발을 벗지 않았다. 아니 벗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교양과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다.

왜?

앉자마자 바퀴벌레들은 스멀스멀 기어 다니다가 내 운동화 위로 청바지로 기어 올라왔다. 미치도록 징그러웠지만 그렇다고 고함을 지를 수가 없어 어금니를 짹 깨물었다. 고함을 질러도 바퀴벌레가 알아듣고 미안해하면서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까지 이 배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바퀴벌레 많은 배가 그래도 제일 넓고 좋은 배였다. 그랬으니 일본인 연구가가 머물렀겠지.

다음 날 또 그 배를 탔다. 바퀴벌레가 아이들을 물지 않느냐고 물었다. 간 큰 바퀴벌레들이 아기들 잘 때면 보드라운 팔다리를 물어서 아기들이 자꾸 보챈다고 쩡그리면서 말하는 아기엄마의 그 표정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떠나오면서 나는 우리 아이 키우던 그때 그 마음으로 바퀴벌레 잡는 약 한 통을 사 주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들에게는 무엇을 나눠 줄 때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그곳에서는 진리처럼 여겨졌다. 착하다고 그냥 주면 질투와 시기가 생겨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공동분배를 해줘야 한다고 아스뿔씨가 말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나 없는 자가 쌀 한 톨 더 움켜잡으려는 것은 같은 이치인가 보다.

빨라우족이 모두 가난한 건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에 한 사람이 아파도 온 가족이 함께 배를 타고 가야 하니 그 연료비와 시간낭비를 꼬집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그들을 달팽이라고 한 것엔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그들의 재산은 배 한 척뿐이다. 누가 아프면 바닷길을 걸어 갈 수가 없고 배가 육지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이 움직이는 것이다. 집을 가지고 다니는 건 달팽이 뿐이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그들을 '바다의 달팽이'라고 한 것이다.

내생각에는 그들이 공부하고 배워서 부지런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기 때문에 따 먹어도 끝이 없는 바다의 해산물은 모두 그들의 것이니까. 그물만 내리면 예쁜 고기들이 잡혔고 싱싱한 바다풀을 뜯어서 밥과 함께 먹으면 간이 딱 맞고 좋았다. 또한 그들은 바위틈에 붙어있는 대합조개(kima kerang)를 따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팔기도 했다.

생으로 먹는 조개살맛은 익힌 게맛살보다 더 맛있었다. 제 작진은 바다풀도 조갯살도 안 먹겠다고 했다. 아마 젊고 신선

이러서 살아 갈 날이 많아 몸조심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나는 숫구치는 호기심을 떨칠 수가 없어 싱싱한 조갯살도 바다풀도 먹었다.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였다.

바다에는 배만 있고 학교는 없다. 그래서 빨라우족들은 수영도 잘하고 통통배도 잘 타지만 글은 모른다. 읽은 줄도 쓸 줄도 모른다. 그야말로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이라는 것 밖에는 그러나 그림은 알고 있었다.

지난 번 무국적 사건이 있고 난 후 바뚜뿌띠 면의 면장과 아스빨씨가 그들은 보호하기로 했다. 그들에게 통신수단으로 핸드폰을 사 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글을 몰라 사용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핸드폰을 목걸이로 만들어 주고 올리면 버튼만 눌러 받는데 자동차그림이 뜨면 면장, 축구공이 뜨면 아스빨씨라고 입력해 두었던 것이다.



Kima Kerang / 빨라우족들이 넣어 놓은 조갯살

빨라우족들의 소망 그리고 나의 바람

빨라우족의 가장 큰 소망은 크지 않았다. 그저 비가와도 새지 않는 천막 칠 수 있는 배, 지난 번 육지로 보호되어 갔다가 25일 만에 돌아와 보니 삶의 터전인 배(집)들이 모두 부서졌고 침수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고칠 경제적인 능력이 모자라서 아들 집에 함께 살고 있던 알라말씨. 하지만 아들의 배도 낡아서 세 시간마다 삼십 분씩 펌프질 하여 물을 피내야 하는데 그 일을 늙은 아내와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가슴 아파 하며 한숨을 내몰아 쉬던 아저씨가 떠오른다.

촬영 마치고 떠나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식량으로 고구마 한 포대기와 비스킷 담배 그리고 배에 사용되는 연료를 사 주고 또 아기 낳은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천막이 찢어져서 비가 새고 아기들이 아프다기에 천막도 사 주고 돌아왔다.

나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도 하지만 제작진들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 촬영을 도와주는 현지 코디네이터다.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MBC의 김혜수의 W 프로그



장례가 끝난 후 바다로 들어가서 몸을 씻어내는 빨라우족들

램을 많이 사랑한다. 제작진들도 무조건 제작비를 아끼려고 하지 않고 어두운 곳의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고 용기를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장에서 함께 하는 제작진으로서 나는 진정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곧 폐지가 된다. 김혜수가 서운해 하더니만 나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 그러나 곧 부활하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빨리 하나 생겼으면 한다.

민사 소송법 - 3

이승민 변호사·변리사(YSM & PARTNERS) / yisngmin@centrin.net.id

(전화에서 계속)

11. 소송 서류 작성

거의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가 작성하나 변호사가 소장을 사실대로 법리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소송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바람직하기는 의뢰인이 사건 경위 및 개요와 희망 사항을 가능한대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구두로 보충 설명을 해주면 변호사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소장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분류된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의 인적 사항,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인 근거 및 청구 내역이다.

12. 소송 당사자의 인적 사항

성명(Full name), 별명, 상호(Full name), 약칭, 거주지, 소재지, 거주지 혹은 소재지 불명 시에는 최종 거주지 혹은 소재지의 동장으로부터 주소 불명 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상은 필수 기재 인적 사항이며 동명이인으로 인한 착오를 피하기 위하여 상기한 사항 이외에 직업, 성별, 종교를 기재해도 무방하다.

13. 청구의 원인(소송을 제기하는 근거)

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됐는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 사항은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13.1.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한 고소장 접수증이나 반대로 피고가 원고를 형사 고소한 접수증은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13.2. 실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약정한 약정서는 청구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도박을 금하는 실정법을 어기고 도박을 하다가 도박에서 발생한 채권은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며,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 사업을 하는 경우에, 현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주가 아니고 외국인인

실제 사주라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하는 중, 현지인이 외국인 소유 사업을 현지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외국인이 체결된 약정서를 근거로 현지인을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외국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차명 사업 약정서 자체가 실정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3.3.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청구는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

13.4. 사실관계가 설명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13.5. 청구의 원인들이 서로 모순인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13.6. 분쟁의 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불명한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14. 청구의 취지(원고가 요구하는 사항)

“.....판결을 구한다” 로 쓴다.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일금 Rp.10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이다. 요구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쓰지 않으면 각하의 사유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지 못하며, 원고가 청구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하로 판결할 수는 있으나 청구한 내용 이상의 판결은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원고가 Rp.100억을 청구했으면 기각하거나 Rp.100억 이하로 판결할 수 있으나 Rp.100억 이상으로 판결은 불가하다.

15. 가압류

원고가 승소 시 손해배상을 보장받기 위하여 소송 청구와 동시에 피고의 부동산 혹은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장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원주자재 재고, 제품 재고, 은행 계좌, 채권 등 피고의 모든 재산이 가압류 대상이 된다. 가압류 허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며 피고가 모르는 사이

에 가압류되는 경우가 흔하다.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을 금할 뿐이며 피고의 사용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가압류 해제도 재판부의 재량에 속한다.

16. 소송상의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은 법정(法定)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이 있다. 법정대리인이란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본인과의 신분관계에 의하거나 관공서 혹은 제3자의 선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리인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상속재산 관리인, 부재자재산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며, 파산이 선고된 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이 법정대리인이며, 소송대리인이란 특정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 즉, 변호사를 의미한다.

17. 변호사 대리의 원칙

인도네시아 소송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 수행 능력이 있는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15”항에서 열거된 소송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직접 할 수 있다. 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8. 민사소송 진행 절차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된다. 고소장 등록 - 재판부 임명 - 변론기일지정 - 원고와 피고에게 법원 출두 명령 및 피고에게 소장 부분 송달 - 중재 절차 - 피고의 답변 (반소 제기 혹은 소송참가) - 원고의 주장 - 피고의 변론 - 증인 조사 - (현장 조사) - 전문가 증인 조사 - 원고의 입증 - 피고의 입증 - 최종 변론 - 판결문 - 항소 - 판결문 - 파기청구 - 판결문 - 확정 판결문 집행 허가 - 확정 판결문 집행 - (재심청구) -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문)의 순으로 진행된다. *(괄호)안의 사항은 필요시에만 해당된다.

19. 송달

소송 당사자 혹은 소송 관계자에게 법원의 형식에 따라 소송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통지하는 행위를 송달이라고 한다. 우편으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원사무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소환장의 송달은 원본을 판결의 송달은 정본으로 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파산이 선고된 자에게는 관재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송달시한은 늦어도 법정 출두일 7일 전에 해야 한다. 송달이 잘못되는 경우에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20. 공시 송달

소송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는 법원에 보관하고 법원 게시관,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재판장의 공시 송달 명령이 있어야 한다. 공시 송달의 효력은 교부(직접) 송달의 효과와 동일하다. 소송관계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 새 거주지를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공시 송달 가능성이 많으며 공시 송달로 인하여 소송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패소할 수 있는 위험이 많다.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거주지 이전 시 관할 동사무소에 새 주소지를 신고함이 바람직하다.

21. 중재 절차

인도네시아 소송법에서는 심리에 앞서 중재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 이외에 Mediator(판사 혹은 법원에 등록된 Licensed Mediator)를 임명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중재를 통한 화해를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법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모든 민사 재판은 중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효가 없는 형식에 불과한 절차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비싼 비용을 드려 변호사를 이미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Mediator를 통해 원고와 피고 간에 화해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중재 기간은 최장 40일이다.

22. 항변

피고는 원고의 소 청구에 절차상 혹은 다른 이유를 들어 소송이 청구된 법원에 항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 시에는 중재원 혹은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고 약정이 되어 있거나, 소송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소송이 등록된 법원이 소송법과 상이하거나, 소송 당사자가 빠진 경우에 소를 각하시켜 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있다.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소는 각하된다.

23. 피고의 답변

중재 절차가 무위로 끝나면 바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며 심리의 제1차 순서가 원고의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다. 피고의 답변은 원고가 청구한 사항을 시인 혹은 부인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피고의 답변 논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일한 논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판 도중에 논조를 바꾸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다.

24. 반소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그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귀책사유 못지않게 상당한 이유 혹은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최선의 방어책 중에 하나는 공격이다는 논리와 흡사한 생각이다. 본소만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공격만하고 피고는 방어만 하게 되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 원고 피고 둘 다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며 더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소 제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답변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야한다는 시한이 있다. 시한을 놓치면 당연히 반소가 불가하며 별도로 소송을 청구해야한다. 본소와 반소는 동일 재판부에서 동시에 진행시킨다. 반소가 있으면 본소의 피고는 반소의 원고가 되며 본소의 원고는 피고가 된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고소 취하

원고는 하사라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을 한 후에는 피고의 소 취하 동의가 있어야 소가 취하가 가능하다.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시켜야 한다.

26. 소장 내용 변경

원고는 청구의 원인(소송을 제기하는 근거)을 변경하지 않는 한 소송 진행 중 소장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피고가 답변을 한 후에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소장 변경은 불허하고 있다. 피고가 답변을 통하여 변론 논조를 정하고 원고의 청구 사항에 대하여 시인 혹은 부인을 표명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더 불리한 내용으로 소장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올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일단 답변을 제출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소장 변경은 불허한다.

27. 소송 참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가 이해관계자를 소송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소재한 외국법인 A가 인도네시아인 B에게 위임장을 주어 A의 채무자인 인도네시아 회사 C로부터 B가 A를 대신하여 A의 외상 채권을 B로부터 토지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그 후 C의 마음이 변하여 대물 변제한 토지를 다시 내어 놓으라고 C가 A에 대하여 토지 반환 소송을 청구한 경우에, A는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B와 C간의

소송에 참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B도 B와 C간의 소송에 토지의 실제 주인 A를 소송 당사자로 끌어드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A, B, C가 모두 소송당사자가 됨으로써 사실 관계 확인이 용이해지고 더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28. 원고 불참 시 재판

소송을 청구한 원고가 송달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법원사무관을 통하여 소환명령을 송달한다. 원고가 또 불참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법원사무관을 통하여 소환명령을 송달하고 그래도 불참 시에는 소를 각하한다.

29. 피고 불참 시 재판

피고가 송달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법원사무관을 통하여 소환명령을 송달한다. 피고가 또 불참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법원사무관을 통하여 소환명령을 송달하고 그래도 불참 시에는 소를 인용(원고 승소 판결)한다.

30. 원고의 주장(원고의 두 번째 제출 서류)

피고의 답변이 있는 후 원고는 피고의 답변을 검토해보고 반박과 변론으로 청구의 원인과 청구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원고의 주장서를 제출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시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박이나 변론이 불필요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박과 변론이 필요하다.

31. 피고의 변론(피고의 두 번째 제출 서류)

원고의 주장을 들은 후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기의 주장을 변론하는 피고의 변론서를 제출한다. 피고의 변론서는 이미 제출한 피고의 답변을 보완하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32. 입증

민사소송의 모든 절차가 중요하지만 입증이 가장 중요하며 복잡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대가 주장을 인정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재판은 증거를 쥐고 있는 사람이 승소한다. 사필귀정을 믿고 입증에 소홀하면 패소할 수도 있다. 정당한 위치에 있지 않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이길 수도 있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다음 호에 계속)



1. The Plaza Office Tower 로비에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고 나서 Mid 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된다.
2. 30층에 위치한 영사과, 민원편의제공을 위해 층전 보다 넓혔다.
3. 영사과 복도 맞은 편에 위치한 대한민국대사관.
4. 2013년 완공될 예정인 대사관 신청사 모습.

대사관 임시청사 안내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층전과 동일)



이용 안내

○ 일반절차

- 1층 로비 왼편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교환
- 인도네시아 이민청 발행 신분증인 KITAS 또는 KITAP
 - 인도네시아 경찰청 발행 외국인 등록 관련 신고증 (SKLD)
 -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SIM)
 - 대한민국 여권
 - "MID" 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설치된 출입문 센서에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이용 대사관(30층) 도착
 - 대사관 용무를 마치신 후,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과 신분증 교환

○ 예외절차

- <신분증이 여권만 있고, 영사과에 여권업무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안내데스크에 여권을 제시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여권을 복사하고 출입증 발급

- <여권도 없고, 신분증이 전혀 없는 경우>

-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대사관 영사과에 통화, 영사과 직원이 내려와서 30층으로 안내

○ 기타사항

- 출입증을 분실하는 경우, Rp.150,000을 변상해야 하므로 대사관 용무를 마치신 후 출입증을 반드시 1층 안내데스크에 반납 요망.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이전 안내

주소:

The Plaza Office Tower, Unit E 20th Floor(20층)
Jl. MH. Thamrin No. 28-30, Jakarta 10350

전화: 021) 2992-1900, 2992-2100, 2992-2101

팩스: 021) 2992-2102(KOICA), 2992-2103(KJE)

이용절차:

- 건물로 들어오신 후 안내원에게 방문기관 및 층수(KOICA, 20층)를 이야기하고 신분증을 맡긴후 출입증을 받습니다.
- 총 3개의 건물중 LOW 라고 적혀있는 건물로 향하여 출입증을 출입 센서에 대신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 백화점과 The plaza building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 안내

매년 9월부터 회원을 갱신하는 헤리티지의 제도에 따라, 모든 회원들과 신규 가입하는 분들이 조속히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비 40만 루피아)

헤리티지 40주년 기념식 안내

10월 22일 저녁 6시30분 리스칼튼 호텔에서 4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Gala Dinner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많은 문화 공연이 동반되었으며, 많은 한국분들이 많이 참가하여 즐거운 행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 Kideco Jaya Agung등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Museum Tour

정기적인 국립 박물관 한국어 안내가 매월 첫째 화요일과 셋째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국립박물관 현관 로비에서 시작된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박물관 Langauge 강좌에서 김영덕, 이성래, 정정희, 공희성, 전명숙님이 자원봉사로 박물관 큐레이터를 상대로 일주일에 한번 박물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School Program

지난 9월 29일과 10월 2일에 각각 이정희씨와 김영덕씨 집에서 와양 발표 준비를 했으며, 10월 5일에 한국국제학교에서 초등 2학년대상 78명을 대상으로 김영덕 팀장을 중심으로 준비하여, 이청민씨가 와양발표를 해주었다. 10월 27일 이수진씨 집에서 바틱에 대해 공부를 했다.

Photo Club

지난 10월 12일(화)에 디카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 공부하였다. 신입 회원 0명 모집.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기에 담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한인뉴스후원사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한인뉴스는 1996년 7월 15일 창간 이후 교민사회의 길라잡이로서 한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올 후반기를 맞아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 확보를 통해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 후원사에게는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후원방법 및 후원특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직접 귀사를 찾아 뵙거나 이메일을 통해 후원안내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021-521-2515 /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배상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의 큰 두 갈래

이번 호부터는 우리 생활의 실정에 보다와 닿을 수 있도록 보험을 큰 줄기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외국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진출하여 있지만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한국(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일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글: 이 병 수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물론 21세기에 접어들어 극속한 보험의 발전과 함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많은 신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의 모태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이 다치거나(상해보험), 병에 걸리거나(질병보험), 사망하는(사망보험)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외국계를 포함하여 총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대상자(전문용어로 '보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인 사람이나 물건이 입은 실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제도로써 실무상 자동차보험, 일반보험(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및 장기보험의 큰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손해의 형태로 재산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책임보험, 기업휴지보험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에는 27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따로 또 같이 - 기본적인 차이점은?

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의 성격부터 다르지요? 생명보험은 정액(正額)보험입니다! 보험사고(사람의 신체에 대한 질병, 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지요. 이에 반해 손해보험은 실손(實損)보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 없이 특정한도(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로 손해를 입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중복보장의 여부에 있습니다. 즉 한 보험회사 또는 여러 보험회사에서 복수의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의 보상방법의 차이가 있지요. 생명보험에서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개수 또는 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각각의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중복보장)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 재해사망보험금 3억원으로 약정된 보험상품을 여러 개의 보험회사에 총 열 구좌를 가입해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함께 30억원(3억원 X 10구좌)의 보험금을 지급받

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손해보험에서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을 2개 이상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Insurable Value) 한도 내에서 실제 입은 손해액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각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쉬운 예로, 보험가액이 10억원인 공장을 A와 B 두 개의 보험 회사에 각각 보험가입금액 10억원의 화재보험가입을 하였을 경우 화재사고로 총 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보지요.

두 개의 보험회사가 각각 얼마씩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묻는 간단한 산수문제이지요. 독자여러분은 이미 해답을 찾으셨지요? A와 B 보험사는 각각 2억5천만원씩의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면 되겠지요?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의 가입과 보상에 대하여는 생명보험 집중탐구가 끝난 다음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해보기로 하지요.

퀴즈 하나!

그럼 이쯤에서 독자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어드리지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e-mail (hatibaru@naver.com)을 보내주세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퀴즈 - 위에서 손해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된다고 했는데, 즉 실손보상을 한다는데, 생명보험에서는 어찌하여 일정한 한도가 없이 보험을 든 만큼 총보험가입금액 만큼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꼭 연락주세요.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어렵듯이 알 것 같지만 하더라도...

생명보험 집중탐구 첫 시간!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신 교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어려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보험분야가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호부터 상당기간은 생명보험을 집중탐구하여 교민여러분의 갈증을 다소나마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손해보험상품은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

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등... 그런데 생명보험은 어떨까요? “생명보험이 생명보험이지. 아프거나 사고로 죽으면 보상받는 것이 생명보험이지. 보험회사마다 상품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다 같은거 아냐?” 한 이십년 쯤 전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별로 무리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보장내용의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보험전문가(물론 손해보험분야에서)라고 자처하는 저조차도 생명보험상품 하나 고를라치면 머리가 어지럽고 골치가 아파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온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의 소리 때문에, 또는 젊은 나이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고 여윌돈을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맡겨두는 것이 수익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회사와는 친하지 않다가, 이제 나이가 중년을 넘어서면서 건강에 대한 회의가 들고 내가 없으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걱정에서 ‘생명보험 하나 들어둘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지요. 고민 끝에 큰맘을 먹고 보험가입을 결심한 만큼 경제적 여건,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 조건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보험을 선택하려는데 막상 알고지내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보니 보험과의를 받는 입시생같이 느껴질 정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명보험 상품이 무엇인지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필자와 가족의 생명보험 가입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어떤 보험상품들이 있는지 파헤쳐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김 태 진

김정일은 군 경력이 전혀 없는 3남 김정은에게 군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44년 만에 개최되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에 선임하면서 김정은을 북한 권력의 전면에 등장시켰다. 마치 봉건왕조 시대의 권력 대물림을 하는 것처럼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게로 후계세습을 진행하려는 김정일이 사후 믿을 건 결국 혈육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중을 드러내 보였다.

김정은은 차후 적절한 시기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과 중앙군사위 위원장직을 물려받음으로써 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당중앙위원회가 대부분 고령의 김정일 충성파로 채워지고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김정은 시대가 2300만 북한주민들의 생존보다는 현대판 왕조체제의 세습과 완성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이 자명해졌다.

김정은의 깜짝 등장은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쇼다. 북한은 권력이 집단적으로 김정은으로의 세습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 쓰고 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정권은 혁명정통성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영웅 만들기에 동원되고 그 어느 때보다 고된 나날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호화사치 생활을 누려왔다고 한다. 일본인으로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인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은이 10대부터 술과 담배를 즐기고, 백두산에서의 금기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북한 주민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처한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권좌만을 탐닉하는데 몰입할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 김정은의 살찐 모습은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고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은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패로 끝난 화폐개혁을 주도하였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북한이 여전히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호전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며, 화폐개혁은 북한 내부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개혁 개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권력세습과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회는 결국 후계자 공식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정체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김정일이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을 맞이하여도 충성파들로 하여금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권력세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권력교체 시기에는 김정은의 자체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신에 대한 충성파를 중심으로 집단적 권력교체를 이루어 가면서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돌입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권력이 안정되기 전에는 대외적인 개방과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질 것이다.

결국 김정은 시대는 남북관계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으며,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위해 강도 높은 핵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므로 국제사회와의 관계 역시 대립구도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은 세대에 걸쳐 북한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북한의 反문명적 3대세습에 세계인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反민주 독재국가라고 매도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국내 중북세력들은 전대미문의 3대 세습에는 침묵하고 있다. 북한의 반민주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중북세력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법적철퇴가 가해져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노예제를 근간으로 하는 왕조세습체제가 아닌,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과 보다 구체적인 북한변화 플랜을 가동할 때가 되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3대 세습과 한국 좌파의 위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한 기 흥

지난 9월 27일 북한은 군 경력이 전무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에게 군사계급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9.28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에 선출하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어 30일자 노동신문에 김정일을 위시한 북한의 최고위층과 나란히 찍은 김정은 사진을 최초 공개함으로써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공산주의'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규정하는 한편 '김일성 조선'과 같은 표현도 새로 제시했다. 이로써 북한은 1997년 「주체」 연호의 등장 이후 봉건왕조 국가로서의 형식적 규정이 완비된 셈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시대의 대세인 현대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같은 민족인 우리로서도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민족의 반쪽인 남쪽은 지난 60여 년간 최극민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고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부쩍 성장하여 11월에는 세계의 지도국들의 모임인 G20 서울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반쪽은 수백만의 주민들을 굶어죽이고 끔찍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핵무기와 미사일로 남쪽을 향한 공갈과 협박으로 연명하고 있다. 세계는 북한의 3대 세습과 왕조국가 구축이라는 전대미문의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영국 리즈大的 「에이든 F. 카터」 연구원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군사주의는 강화됐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군주제”라고 비판했다. 전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도 북한에서의 3대 세습을 이미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막상 현실화하자 ‘쇼’, ‘코미디’라고 냉소했다.

이런 지구촌의 냉소적 반응과는 달리 유독 한국의 좌파만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평소

대북 쌀 지원 등에는 목소리를 높여오던 좌파단체들 뿐만 아니라, 천안함 침몰에 대해 정부의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 발표를 부정했던 참여연대도 3대 세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의 친북 발언 및 행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는 “그동안(세습 문제에 대해) 추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는게 적합하지 않다”고 의도적으로 이를 피해갔다. 평소 북한의 핵개발 등에 대해서도 옹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민주노동당은 한 술 더 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것이 입만 열면 약자를 위한다고 침이 마르게 떠들던 한국 좌파의 실상이다.

일반적으로 좌파는 이념적 변화를 거듭했지만 사회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예측과 억압을 반대하는 국제연대를 추구한다는 정체성은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약자는 누구인가. 수십년에 걸친 절대봉건왕조의 폭정 아래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억눌려 사는 북한 동포가 아니던가. 비록 당장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진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비인간성과 비민주성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좌파의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한국의 좌파 대다수는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는 결과적으로 한국좌파의 양심은 이제 죽었고, 그들이 외치는 구두선이 허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이윤배 반적인 한국 사회 좌파의 몰락을 알리는 역사적 조종(弔鐘)이 될 것이다

Garuda Orient Holidays

www.garudaholidays.kr

GOH 와 여행하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서비스 및 전 세계 호텔예약 서비스



국제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대한 항공, 싱가포르 항공, 캐세이퍼시픽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에바 에어, 로얄 타이 항공, 일본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전일항공, 콰타스 항공, KLM로얄 더치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스위스에어

국내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바타비아, 스리 위자야

“가루다 항공 자카르타 AIRTEL”

인천발 자카르타행 기내에서 이민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해진 Garuda 항공 에어텔 프로그램 **11월 30일 까지 유효**

GOH 호텔	객실종류	요금(원)	
		2인 1실	1인 1실
★★★ IBIS Slipi IBIS Mangga Dua Mercure Rekso	Standard Superior Superior	579,000	669,000
★★★★ Aston Marina Le Meridien Crowne Plaza Gran Melia	1 BedRoom	589,000	689,000
	Superior	609,000	739,000
	Deluxe Deluxe	619,000 669,000	759,000 859,000
★★★★★ Mulia Senayan Four Seasons Ritz Carlton Mega Kuningan Mandarin Oriental Jakarta	Superior	749,000	1,019,000
	Splendor	759,000	1,029,000
	Grand Room	789,000	1,089,000
	Superior	799,000	1,099,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7일 유효),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및 조식		
불 포함사항	항공 TAX, 현지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인도네시아 입국 비자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지 호텔”

지역	호텔 * 리조트	풀빌라 * 산장
발리	★★★★★ Inter Continental, Conrad Westin, Nikko Bali, Melia	Kamuella Vilas Sminyak The Ahimsa
	★★★★ Best Western New Kuta Condotel	
	★★★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룸복	★★★★★ Sheraton Senggigi	Pool Villa Club The Santosa Vilas & Resort Puri Mas Boutique Resort & Spa Qunci Villas
	★★★ Senggigi Beach Hotel	
	Holiday Resort	
족자카르타	★★★★★ Hyatt Regency, Melia, Sheraton	
	★★★★ Phoenix, Novotel, Satika, Plaza	
	★★★ Puri Asri	
수라바야	★★★★★ JW Marriot, Shangri-La	
	★★★★ Plaza, Novotel, Somerset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행복 & 돈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 / 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 / KORINDO



어느 책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돈쓰는 다섯 가지 방법 이란 글을 읽었습니다.

비틀즈의 노래 중 ‘돈은 내게 사랑은 못 사줘(Money Can't Buy Me Love)라는 노래가 있다 하지만 프리티 우먼에서 리차드 기어는 줄리에 로버츠의 사랑을 돈으로 샀다. 즉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랑을 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역설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할것 같습니다. “돈은 행복의 기회도 제공하지만 거꾸로 방탕한 생활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기준에 따라 현재 나의 수입이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일것 입니다. 옛 속담 에도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 때는 천한 일이라도 하면서 벌고 쓸 때는 떳떳하고 보람 있게 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입니다.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자는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더 잘 챙길 수가 있으며 재미있는 일을 할 여유가 있겠지만, 부자가 반드시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 드라마 바람불어 좋은 날에서도 미란의 가족은 물질적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나 그 돈으로 인해 딸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고 힘들어 하게 만들며, 그걸 보는 자신도 힘들어 집니다. 딸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매일 매일 고민합니다. 해결책의 끝엔 모두 돈으로 연결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이네 가족은 비록 평범한 가정이지만 돈을 떠나 서로를 아끼고 진정으로 위해주며 사랑합니다. 미란이네 가족과는 다르게 어려운 상황속에 있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다음은 그 글 속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 입니다.

물건보다는 경험에 투자하라;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진은 최근 물건이나 건물을 사는 것보다 여행, 강습, 사교활동 등에 돈을 쓰는 것이 행복에 훨씬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심리학과의 소냐 류보미르스키 교수는 “욕실을 개조하거나 소파를 샀을 때의 기쁨은 종종 순간적인 데 그치지만 무형적인 것이 오히려 오래 간다”고 말했으며, 물건은 닳거나 오래돼서 가치가 줄어들기 쉽지만 경험은 끊임없이 추억을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하나하나씩 추구하라; 행복은 ‘한 건’으로 얻기 힘들다. 작은 기쁨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한 순간의 큰 행복보다 더 좋다. 지금껏 연구결과 삶의 행복에서는 얼마나 강하게

즐거움을 느끼는가보다는 얼마나 자주 만족감을 느끼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돈을 써라; 학생들에게 5달러와 20달러를 주고 그날 쓰게 한 뒤 다음날 행복을 체크했더니 친구나 남을 위해 돈을 쓴 이들이 더 행복해했다. 미국 오리건 대학교에서는 한쪽에는 강제로, 한쪽에는 자발적으로 자선활동에 참가하게 하고 사람들의 뇌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통해 분석했다.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남을 도운 사람뿐 아니라 강제로 자선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뇌도 행복할 때 활성화되는 '보상 부위' 세포들이 바빠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 경제적으로 추구하라; 뭐든지 돈으로 사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스포츠카 매니아라면 무조건 비싼 차를 사기 렌터카로 써보는 것도 좋다. 스피드를 즐기면서도 오일과 바퀴를 갈고 부품을 수리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될 것이다.

구매의 장점만 보지 말라; 예를 들어 호숫가의 별장을 산다고 생각해보라.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 환상적인 해돋이, 낚시의 즐거움 등만 떠올리고 지갑을 연다. 그러나 모기에 물어뜯기고 수시로 침입하는 벌레와 싸워야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주말마다 집안 수리에 시간을 써야하고 주말을 끝내고 귀가할 때 교통체증과 싸워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을 살 때에는 장단점을 따져야 한다.

물론 위 다섯 가지 항목이 모두에게 적용 되진 않겠지만 나누었을 때 모든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 행복은 차근 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버린 화폐! 돈! 과연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해 돈 쓰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실천할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뜰 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는 행복한 삶을 위해 돈 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는건 어떻게 생각해 보는건 어떨까요?.



바람불어 좋은날 Manisnya Hidup

비록 친 엄마는 아니었지만 친 엄마 못지 않은 정을 나눈 독립과 오복... 대한과의 관계에서 불신이 생기면서 중국에는 이혼 하게 되 독립이도 더 이상 오복이를 볼 수 없게 되자

매일 우고 보채며 엄마를 찾는다. 이혼 서류 접수 당일날 속이 상해 있던 대한이는 떼쓰는 독립이에게 다그치며 한마디 하는데..



Jang Dok Lip! Jangan terus *merengek*.
장독립! 계속 떼 쓰지마.

Merengek : Meminta sesuatu sambil menangis-nangis sampai dikabul permintaannya

어근은 *rengok*으로 보채다 라는 뜻으로 원하는바를 들어 줄때까지 울면서 보채는것을 뜻합니다.

예) Min *merengek* meminta dibelikan sepeda
민은 자전거를 사줄 때까지 보채다.



결혼해 주세요 Nikailah Aku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어도 개개인이 겪는 인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알수 없는 태도로 본인의 과거를 함구하고 살아 오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훈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 하기 보다는 본인의 잘못이었다면서 연호와 헤어지겠다고 약속 합니다.

Aku terlalu **tamak**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Tamak 탐욕이나, 큰욕심(본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을 뜻하며 **Serakah**(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할때)와 동일한 뜻이나 **Tamak**은 문어체에서 **Serakah**는 구어체로 주로 사용됩니다.

예) 탐내다 욕심 내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 되는 단어는 **Tamak, Serakah, Rakus, Lahap, Nafsu** 등이 있습니다. 문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tamak 과 **Serakah**,

- Dia berlaku curang karena **tamaknya**.
그는 사리사욕 때문에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

- Meskipun sudah kaya, ia **serakah** juga hendak harta saudaranya.
이미 부자이면서, 형제의 재산을 원할만큼(탐낼만큼) 탐욕스럽다.

Rakus 탐욕스러운, 게걸스럽게 먹는 **lahap**은 **Rakus**와 동일한 뜻이나 식탐이나 소유권이 없는 것에 욕심내어 뺏는 표현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lahap과 **rakus**

- Dia **rakus** makan masakan apa saja yang dimasak oleh ibunya.

그는 엄마가 해준 음식이면 (가리지 않고) 게걸스럽게 잘 먹는다.

- Polisi menghisap **lahap** harta rakyat sampai buncit perutn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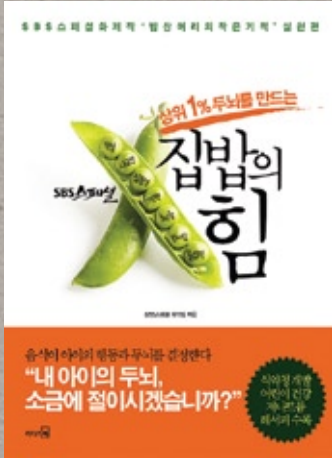
경찰들은 배가 불룩해 질때까지 국민들의 재산을 빨아(권한이 없는것에 욕심을 내다) 먹는다

Nafsu : dorongan hati yang kuat untuk berbuat kurang baik. 욕심, 욕구, 욕망(주로 부정적인 욕망(강한 마음의 의지)을 뜻하나 식욕을 나타내는 속어로 사용 되기도 함(nafsu makan)을 뜻합니다. .

- Dia berencana diet karena itu menahan **nafsu** makan .
다이어트 계획 중이라 식욕을 억눌르고 있다.

Hawa nafsu는 속어로 욕욕(육체적인 욕심)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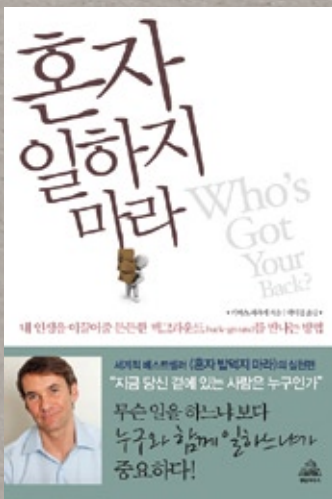


상위 1% 두뇌를 만드는 집밥의 힘

저자 SBS스페셜 제작팀 | 출판사 웅진씽크빅

아이의 숨은 재능을 일깨우는 두뇌 음식, 집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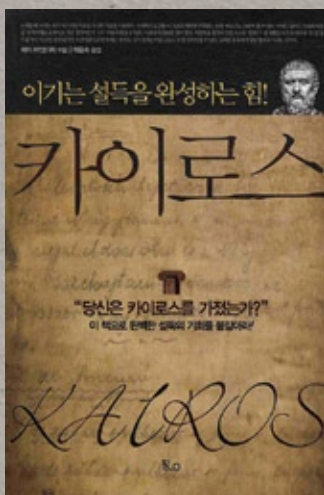
2009년에 이어 2010년 SBS스페셜에서 방영된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2: 집밥의 힘>은 세계적인 두뇌음식 권위자 패트릭 홀포드 박사를 비롯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뇌음식과 집밥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또한 한국의 집밥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두뇌음식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집밥의 힘』은 집밥의 중요성과 집밥을 통해 아이가 달라진 세계 각국의 사례, 수많은 연구결과를 전해주는 책이다. 바쁜 요즘의 부모들이 집밥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두뇌를 망치는 음식으로부터 어떻게 아이를 지켜야 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혼자 일하지 마라

저자 키이스 페라지 | 역자 박미경 | 출판사 랜덤하우스

생면부지의 누군가를 만나 보이지 않는 경계를 풀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됨으로써, 세상의 지혜와 성공의 기쁨을 교감하고 나누는 '관계의 비결'을 만인에게 공개하며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오른 페라지는, 현재 컨설팅 회사 '페라지그린라이트'의 CEO로서 글로벌기업들의 말단 사원부터 CEO 모두를 아우르는 조직의 일꾼들에게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컨설팅 업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책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개인과 조직 모두가 실천의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다보스포럼에서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었고, <월스트리트저널> <하버드비즈니스리뷰> <패스트컴퍼니> 등에 글을 기고해왔으며, NBC 쇼를 비롯한 여러 TV 프로그램에 등장하였다.



카이로스: 이기는 설득을 완성하는 힘

저자 제이 하인리히 | 역자 하윤숙 | 출판사 8.0

설득을 완성하는 기회 포착 능력, 카이로스!

기회 포착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사학 안내서 『카이로스』. 고대 수사학에서 '카이로스'는 설득하기에 완벽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수사학은 정치 연설이나 법정 변론에서 효과를 올리기 위한 화법 연구에서 시작된 실용적인 학문으로, 최근 직장인의 설득이나 스피치에 수사학을 접목시킨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기는 설득을 돕는 힘인 카이로스를 비롯하여 각종 수사학 기법들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준다. 저자는 재미있는 설명으로, 수 세기를 걸쳐 내려온 수사학적 지식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어린이를 위한 대화 발표 기술 어린이 자기계발기술

저자 서지원 · 김은성 | 그림 서현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미래의 리더가 될 어린이에게 필요한 대화 발표의 기술!

재미와 정보로 채워진 어린이를 위한 말하기 책 『어린이를 위한 대화 발표 기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이 자기계발동화」 시리즈의 후속작 「어린이 자기계발기술」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더욱 심층적인 자기 계발 방법을 재미있는 동화와 함께 친절하게 알려준다. 「어린이 자기계발동화」로 인성을 계발하고, 「어린이 자기계발기술」로 실천에 필요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이번 책에서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일인자로 꼽히는 김은성 아나운서가 개발한 어린이 맞춤형 말하기 비법 5단계를 소개한다.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화와 발표의 기술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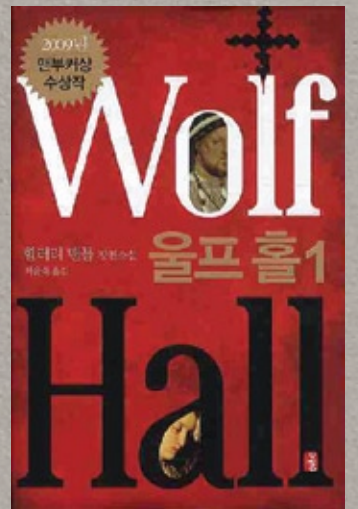


울프 홀

저자 힐러리 맨틀 | 역자 하운숙 | 출판사 을

울프 홀, 먼저 사냥하지 않으면 사냥당한다!

2009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힐러리 맨틀의 역사소설 『울프 홀』 제1권.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인물 토머스 크롬웰의 삶을 따라가며 16세기 튜더 왕조의 음모와 계락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격변의 시기였던 16세기, 무자비하고 비정한 왕 헨리 8세. 미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난 토머스 크롬웰은 엄격한 사회의 규칙들을 깨뜨리며 권력의 상층부까지 오른다. 그리고 냉혹한 궁정 안에서 헨리 8세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왕의 최고 고문관까지 올라간 토머스 크롬웰의 삶을 따라가며 권력과 인간 본성에 관한 통찰을 풀어놓는다.



아시안 잉글리시 - 영어를 삼킨 아시아 표준 영어를 혼든다

저자 리처드 파월 | 역자 김희경 | 출판사 아시아네트웍

누구를 위한 '원어민 영어'인가? 이제는 통(通)하는 영어 '아시안 잉글리시' 시대!

전 세계에서 모국어가 다른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영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아시아에서 두드러지는데,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한국인들이 표준 영어와 원어민의 완벽한 발음을 따라잡기 위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만큼 못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아시안 잉글리시』의 저자 리처드 파월은 아시아인들이 왜 현재 자신들이 쓰는 영어를 놔두고 저 먼 곳에서 표준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영어를 공부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위해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그는 아시아인들이 쓰는 싱글리시, 타이글리시, 콩글리시 등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아시안 잉글리시'를 통해 아시아와 영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 Last Chance Harvey

뉴욕에 사는 광고 음악 작곡가 하비는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위해 바쁜 일정을 쪼개 런던으로 떠난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딸아이는 자신이 아닌 새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섭섭한 소식을 전하고, 회사에선 느닷없이 해고 통지까지 전해지면서 하비의 런던 여행은 꼬여만 간다.

우울함을 달래러 카페에 들렀다가 우연히 공항에서 일하는 케이트와 이야기를 하게 된 하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낀다.

사는 곳도, 성격도, 취미도 다른 두 사람, 과연 하비와 케이트는 인생에 마지막일지 모르는 사랑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부당거래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연쇄 살인 사건. 계속된 검거 실패로 대통령이 직접 사건에 개입하고, 수사 도중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다. 가짜 범인인 '배우'를 만들어 사건을 종결 짓는 것!

이번 사건의 담당으로 지목된 광역수사대 에이스 최철기(황정민).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줄도, 뺨도 없던 그는 승진을 보장해주겠다는 상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건에 뛰어들게 된다. 그는 스폰서인 해동 장석구(유해진)를 이용해 '배우'를 세우고 대국민을 상대로 한 이벤트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다.

한편, 부동산 업계의 큰 손 태경 김회장으로부터 스폰을 받는 검사 주양(류승범)은 최철기가 입찰 비리건으로 김회장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에 분개해 그의 뒤를 캐기 시작한다. 때마침 자신에게 배정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조사하던 주양은 조사 과정에서 최철기와 장석구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최철기에게 또 다른 거래를 제안하는데..



사랑하고 싶은 시간

What More Do I Want / Cosa voglio di piu

<사랑하고 싶은 시간>은 평온한 결혼생활 속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던 안나가 우연히 회사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도메니코와 만나게 되면서 시작된다. 도메니코를 만나 몸과 마음을 뒤흔드는 사랑의 감정에 빠져드는 안나는 잊고 있던 일상의 기쁨을 되찾지만 불안한 두 사람의 관계는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된다.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서 '다른 모습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한 여인의 감정을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그려낸 <사랑하고 싶은 시간>은 여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간절하고 설레이는 사랑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영화다.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HYUNDAI
TRUCK & BUS**



More than a game, it's a way of life.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KORINDO MOTORS** CONTACT: (021) 596-0445

 **HYUNDAI**